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美國 統治 初期 필리핀 華僑의
구성과 활동

-1900~1916년 필리핀 위원회 시기를 중심으로-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주 현 균

美國 統治 初期 필리핀 華僑의 구성과 활동

-1900~1916년 필리핀 위원회 시기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최 재 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주 현 균

주현균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 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00년대 초 미국이 지배하던 필리핀에서 화교에 대한 식민 지배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그들의 구성과 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다른 나라에서의 '화교'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단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의 지배를 겪으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혼혈 세력과 정책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내 거주하는 중국계 이주민들 역시 다른 필리핀 원주민들처럼 변화를 겪었고, 1900년대에 이르러 필리핀 내 중국계의 분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필리핀 화교의 다양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화교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양한 정책과 지배 세력의 변화가 화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화교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 중국계 이민자 정도로만 인지되는 것을 넘어, 내외부적으로 화교에게 적용되는 영향력이 어떻게 이들을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의 기간은 1900년부터 1916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시기는 미국이 필리핀 위원회를 통해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면서 체제를 확립해 가던 시기였다.

1900년대 초의 필리핀을 살펴보면, 이미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며 인구 구성이 매우 복잡하였다. 이 중 필리핀 내 중국계 인구도 내부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사회적 여파로 인해 華僑, 華人, 華裔 등의 다양한 분류가 생겨났고, 이를 통해 화교 내에서도 정체성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나라의 화교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현상으로, 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필리핀 화교의 분석은 추후 화교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미국이 지배하던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내 중국계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적극 시행되었다. 이 중에서도 이민법은 중국계 혈통을 가진 대부분의 필리핀인에게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 중국계 필리핀인들은 더욱 뭉치게 되었다. 필리핀 위원회는 1850년대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중국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부터 중국계에 대한 통제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내 화교 세력은 그들의 중화권 문화를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남양 학교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이는 미국이 사립학교 설립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었던 덕분이었다. 그 결과, 화교 사회는 교육기관인 학교와 신문 발행과 같은 활동을 통해 중국 문화를 사회 내부에 보존할 수 있었다.

타국인 필리핀에서도 화교는 독자적인 세력을 구성해왔다. 필리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중국계로 인해 화교, 화인, 화예 등의 분류가 존재하며, 이는 필리핀 화교의 내부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다양성 때문에 화교를 단일한 집단으로 보는 것은 화교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억압하는 정책 속에서도 화교는 자신들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필리핀 화교가 지배 세력의 영향을 받았을 때의 반응과 변화를 탐구하여 화교 사회가 그들의 고유적인 성격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본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화예와 같은 정체성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집단의 세부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나, 화교 사회의 다양성의 초점을 두고자 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필리핀 화교, 필리핀 위원회, 미국 통치기 필리핀, 메스티조
학번: 2020-28301

목 차

국문초록	i
제 1 장. 서언	1
제 2 장. 미국 통치 초기 필리핀 화교의 구성과 동향	8
제 1 절. 필리핀 사회의 구성과 화교의 성격	8
제 2 절. 미국의 통치 정책에 대한 화교의 동향	16
제 3 장. 필리핀 위원회의 화교 정책과 화교의 대응	26
제 4 장. 미국의 교육 지침과 화교의 문화 활동	43
제 5 장. 결어	57
참고문헌	59
Abstract	67

표 목 차

도표 1: 혈통과 중국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작성한 필리핀 화교의 분류	4
도표 2: 필리핀 내 인종, 시민권 현황.	29
도표 3: 필리핀 위원회 4차 연간 보고서에 기재된 1899년에서 1901년 입국 거부 통계	36
도표 4: 1904년에서 1941년까지 사용된 미국에서 정한 필리핀 내 중등 학문 교육과정의 초본.	50

제 1 장. 서언

1565년 스페인은 마닐라 갤리온 무역(Manila Galleon Trade)을 시작으로 필리핀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¹⁾ 이러한 동서양 간의 무역 활동의 중심에는 중국인이 존재하였다.²⁾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은을 스페인이 필리핀에 공급하면서부터 많은 중국계 상인이 은을 구입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중국인 상인이 포함된 상레이(sangley) 세력은 이후 필리핀에 정착하여 현 필리핀 내 중국계의 기반을 다졌다.

스페인은 필리핀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 종교를 통한 동화 정책을 채택하였다. 동화 정책은 필리핀 원주민뿐만 아니라 해금(海禁) 시기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중국 상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 이주민 세력은 스페인으로부터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이들은 마닐라 내부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같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³⁾ 이에 따라 스페인은 중국계 이주민의 수용력 및 인구 통제 문제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를 切感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스페인 세력 측에서 시행한 중국인 남녀 이주민의 인구수 제한과 인트라무로스(Intramuros)와 같은 지리적 구획이 있다.⁴⁾

- 1) Benito Legarda, "Two and a Half Centuries of the Galleon Trade", *Philippine Studies*, vol. 3, no. 4, 1955, pp.345~346.
- 2) J. Villiers, "Silk and Silver: Macau, Manila and Trade in the Chia Seas in the Sixteenth Century" (A lecture delivered to the Hong Kong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at the Hong Kong Club. 10 June 1980.), *Journal of the Hong Kong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20, 1980, pp.66~68.
- 3) 긍정적 측면은 스페인 측의 새로운 거래 대상의 등장으로 인한 상권의 확장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중국인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책상의 이유로 대규모 학살을 당한 것은 부정적 측면이다 (Richard Chu, "The 'Chinese' and the 'Mestizos' of the Philippines: Towards a New Interpretation", *Philippine Studies*, vol. 50. No. 3, Ateno, 2002, pp.332-334). 아래 저서 역시 스페인 세력의 중국인 학살에 관한 연구 자료이다(Charles J. MaCarthy, "Slaughter of Sangleys in 1639", *Philippine Studies*, vol. 18, No. 3, 1970).
- 4) 인트라무로스는 스페인이 처음 필리핀에 들어온 이후, 지배층과 피지배층에 대한 구분을 위해 벽을 세워 거주지역을 완벽하게 분리하였다(Manila : [publisher not identified], Carta hydrographica y chorographica de las Yslas Filipinas :

중국계 이주민은 장기간 스페인의 통제를 받으며 대를 이어 왔다. 1898년 미국이 스페인을 몰아내고 필리핀을 점령했을 때 중국계는 이미 필리핀 사회에 뿌리 깊게 정착한 상태였다. 중국계 사람들은 특유의 문화와 사회 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필리핀 원주민 및 필리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필리핀 혁명군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띠었다. 따라서 미국 또한 필리핀 내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별도로 고려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다양한 중국계 인물의 성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에 맞닥뜨렸다. 특히 중국계 인물은 필리핀 본토에서 살아가던 원주민 격인 타갈로그와는 혈통이 달랐던 데다 마닐라 상권에서 오랜 기간 영향력을 키워오며 필리핀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⁵⁾ 미국으로서는 중국인을 무시하고 필리핀 사회를 장악하기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⁶⁾

필리핀 내 중국인에 대한 중요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스페인 지배 시기 필리핀에서의 중국인에 대한 구성과 동화 양상, 그리고 쿨리들의 변화 과정이 필리핀 내 사회적으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논증한 연구가 있다.⁷⁾ 이들 연구의 요지는 중국계 이주민이 필리핀에서 단순히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필리핀 사회에 동화됨으로써 필리핀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즉, 이처럼 해외의 존재하는 중국계, 통상적으로 華僑라고 불리는 중국계 세력의 연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때 여기서 ‘華僑’ 라는 일반적 용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필리핀 중국계의 범위 설정에 관한 고찰은 이런 필

dedicada al Rey Nuestro Señor por el Mariscal d. Campo D. Fernando Valdes Tamon Cavallo del Orden de Santiago de Govor. Y Capn, Manila, 1734. [미국 국회도서관 <http://hdl.loc.gov/loc.gmd/g8060.ct003137> (검색일:20230426) Reynaldo Ilet, *Pasyon and Revolution: Popular Movements in the Philippines, 1840-1910*,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1979).

- 5) Edgar Wickberg, "The Chinese Mestizo in Philippine History."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vol. 5, no. 1, 1964, p.67.
- 6) 물론 경제적 여건 위에 사회적 위치를 고수하는 화교의 특성은 다른 국가에서도 비교적 흔히 발견되며 이에 관한 연구 자료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夏誠華, 『非化政策對華僑經濟之影響』, 中華民國對海外華人研究學會叢書第七種, 2003).
- 7) 이덕훈, 「스페인령 필리핀에서의 중국인의 적응과 동화」, 『디아스포라연구』8-2, 2014, pp.103-130.

리핀 화교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하다. 廣義의 華僑는 해외에 있는 중국인을 통칭하지만, 狹義의 화교는 해외에 임시로 거주하는 중국인을 말한다. 화교는 다시 華裔, 華人 등으로 세분화된다. ‘華裔’는 타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인물을 뜻하며, 국적으로만 분류하면 엄연히 중국인이 아니지만, 중국인의 혈통이 존재하는 ‘중국인의 後裔’라는 의미로 근대 시기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또한 이런 화예의 표현은 근대 이전에도 존재하였는데, 쑤나라 시기 劉琨의 勸進表에도 등장하며 중국인의 후예를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⁸⁾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화예란 한 국가에 이주한 중국인이 비교적 오랫동안 여러 대를 이어 정착한 이후 그 후예를 의미한다.⁹⁾ 반면 ‘華人’은 타 국가에 정착한 화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중국에서 태어났거나 중화권의 영향이 화예보다 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보통 타국에 정착한 이후 2대까지는 화인의 영역이라고 설정한다.¹⁰⁾ 이처럼 화교는 거주 기간 외에도 국적, 혈통, 사상, 민족성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에 차이가 날 수 있다.¹¹⁾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8) 劉琨, 勸進表, 317년 3월.

“天祚大晉，必將有主，主晉祀者，非陛下而誰？是以邇無異言，遠無異望，謳歌者無不吟詠徽猷，獄訟者無不思於聖德，天地之際既交，華裔之情允洽”

9) 홍재현, 「화교사회의 형성과 특성 연구」, 『중국인문과학』 34, 2006, pp.631~646.

10) 아래 도표1에서도 화교의 분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11) 해외에서도 관찰자에 따라 기준의 차이가 나타난다. 리차드 추와 같은 메스티조의 관점을 중심으로 중국계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몇몇 중국 연구자들은 화교 중심으로 필리핀 화교 사회를 보고 있다(Richard Chu, “The ‘Chinese’ and the ‘Mestizos’ of the Philippines: Towards a New Interpretation”, *Philippine Studies*, Vol. 50. No. 3, Ateneo, 2002, pp.328~332/ 姜興山, 『菲律賓華人文化重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도표 1: 혈통과 중국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작성한 필리핀 화교의 분류)

광의의 화교: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계 사람을 지칭함		
협의의 화교	화인	화예
외국에 임시 거주하는 중국계 인물.	중국계로서의 성향이 강하고, 외국에 정착하여 2세대까지 타국에서 사는 중국계 사람들.	외국에 정착한 중국인이 3대 이상을 거듭하면서 타국에 동화된 형태의 중국계 사람들.

필리핀 화교는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복잡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화교 정체성의 근간은 중국계 혈통이었으며, 중국 문화는 화교 사회의 기반을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이런 중국계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필리핀 화교의 사회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타국 화교 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학자가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이에 중국계 필리핀인, 화교, 그리고 중국계 메스티조(혼혈)의 특성을 다양한 형태로 설명하고자 하였다.¹²⁾ 몇몇 필리핀 화교 연구자들은 사회적인 측면 외에도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을 복합적으로 연구하여 필리핀 지역 사회의 전체 질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¹³⁾

한편 다인종 국가 내 사회 집단의 동화 및 변화 과정에 관해서는 인

12) 리차드 추는 여기서 메스티조(혼혈)의 조상의 근원부터 그 조상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는 등 전형적인 해외 필리핀 화교사의 연구 경향을 보여주었다(Richard Chu, "The 'Chinese' and the 'Mestizos' of the Philippines: Towards a New Interpretation", *Philippine Studies*, Vol. 50. No. 3, Ateno, 2002).

13) 기존의 해외 연구 성과에서는 내외부적인 요소를 중요한 관점으로 설정하고 화교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내부적인 측면으로는 화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고, 그들의 정착 방식을 기업적인 성향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외부적으로는 지배 방식, 동화 과정을 동반한 정책 등의 여파가 화교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Redding, S. G, "The Spirit of Chinese Capitalism", *Walter de Gruyter*, Berlin, 1993./Borao, J, "The Massacre of 1603 Chinese Perception of the Spanish in the Philippines". *Itinerario*, Vol. 22, no.1, 1998, pp.22~40).

류학적 접근도 자주 시도되었다. 혼혈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둔 동화 정책은 그 인종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나 혈통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필리핀 화교의 全貌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물론 ‘화교’를 단순히 중국에서 왔거나 중국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리핀 화교라는 개념 안에는 혈통 외의 많은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필리핀 화교를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부가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우선 ‘중화성’ (Chinese-ness)과 같은 개념으로 필리핀 내 화교들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한편 1900년대 미국의 정책에 대한 필리핀 화교의 정치적 대응 및 적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¹⁴⁾ 미국 통치 초기에 이미 필리핀 화교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분류되었으며, 각 집단은 화교정책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미국 통치 초기 화교정책을 통해 필리핀 내 화교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위치를 탐구하고자 한다. 1899년 미국은 필리핀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을 통치하기 위한 기관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 결과 등장한 필리핀 위원회(The Philippine Commission)는 필리핀 사회를 이해하고 식민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였다. 필리핀 위원회는 필리핀 화교 사회 역시 파악하기 위해 움직였으며, 중국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필리핀 위원회 시기 미국의 지배 경향을 이해하는 것은 필리핀 화교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필리핀 위원회는 근대 필리핀 화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외부적인 여파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필리핀 위원회는 1차와 2차 위원단을 통해 그 세력을 필리핀 내부에 공고히 하였는데, 이들의 설립 목적은 필리핀의 정책 확립, 필리핀 내부 관찰, 지배력 확장

14) 중국인의 귀화 과정과 필리핀 내 중국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 ‘중화성 (Chinese-ness)’ 이 언급된다. 단순하게 중국인을 이해하기에는 화교의 성향은 굉장히 복잡하다(Richard Chu, “The ‘Chinese’ and the ‘Mestizos’ of the Philippines: Towards a New Interpretation”, *Philippine Studies*, Vol. 50. No. 3, Ateno, 2002, pp.332-334).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필리핀 위원회의 자료를 통해 많은 연구자가 1900년대 초 필리핀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필리핀 위원회의 보고서는 실제로 해외 연구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었다. 특히 중국계 인물들에 대한 보고서에는 당시 필리핀 중국계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¹⁵⁾ 따라서 당시 필리핀 정세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화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필리핀 위원회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필리핀 위원회가 필리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1900년 초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필리핀 화교 세력의 문화적 특성, 미국의 화교정책, 지배 세력과의 관계, 그리고 화교 세력의 구축과 변화의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필리핀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토대로 화교의 구성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필리핀 위원회의 보고서, 당시 중국 본토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과 화교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다.¹⁶⁾ 3장에서는 필리핀 위원회의 화교 정책과 화교의 대응을 검토한다. 미국은 이 시기에 화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민법과 같은 화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 화교의 양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시 미국은 어떤 근거로 이런 정책을 고려하였으며, 미국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화교 세력에 어떤 여파를 끼쳤는지를 알아본다. 4장에서는 위원회가 정착하고 난 이후 실시된 미국의 교육 방침과 당시 필리핀 내 중국계의 문화 활동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교육 정책이 당시 화교들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화교 사회 내에서 있었던 그들의 문화 보존의 방식 및 생각을 고찰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미국 통치 초기 필리핀 내 화교 세력의 문화적 특

15) United States. Philippine Commission (1899-1900), *Report of the Philippine commission to the President. : January 31, 1900[-December 20, 1900]* [Vol. 1, no. 2], 1870-1925: The Age of Imperialism, 1900. 태프트 시기 작성된 연간 보고서도 연구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었다.

16) 필리핀 내 화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해혁명과 항일구국운동에 대한 화교 집단의 지원, 화교의 구향운동 등과 같이 필리핀보다는 중국과 관련된 여러 사건 및 운동 활동을 보여주었다(黃滋生·何思兵, 『菲律賓華僑史』,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16, pp.454~503).

성, 동화 양상, 지배 세력과의 관계, 사회적 인식 변화를 탐구하고, 근대 필리핀 화교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국내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생소한 필리핀 화교의 다양한 성향을 살펴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타 국가의 화교 집단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화교의 이후 변모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실증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미국 통치 초기 필리핀 화교의 구성과 동향

제 1 절. 필리핀 사회의 구성과 화교의 성격

1898년 5월 조지 듀이(George Dewey) 제독이 이끄는 미국 해군은 필리핀 마닐라 灣에서 스페인 해군을 격파하며 스페인의 장기간 필리핀 지배를 끝냈다. 그러나 미국은 필리핀을 점거한 이후에도 필리핀 독립군과 같은 세력을 추가로 상대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필리핀을 단일한 구성원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필리핀을 관찰하고 정비하기 시작한 미국은 동남아시아에 식민지를 두고 지배했던 다른 몇몇 유럽 국가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전에 필리핀을 점거했던 스페인과 베트남을 지배했던 프랑스는 근대 교육보다는 종교와 사상적 기제를 이용해 식민지를 통치하였다. 이와 달리 미국은 영국과 같이 식민지 내부에서 정책상의 변화를 이끄는 민주주의 색이 강한 지배 방식을 채택하였다.¹⁷⁾

한편 지배 세력을 논하는 것과 더불어 피지배층을 살펴보면, 다른 많은 나라와 달리 필리핀은 300년이 넘는 기간을 스페인 지배 세력의 피지배층으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여 왔다.¹⁸⁾ 장기간의 피지배층으로 사는 이런 삶은 결과적으로 1890년대 후반 필리핀 내 혁명을 일으켰다. 이 시기를 가장 대표하는 인물로 에밀리오 아기날도(Emilio Aguinaldo)를 꼽을 수 있다.¹⁹⁾ 중국계 혈통을 가진 그가 혁명 시기에 미국을 상대로 보여준 태도는 필리핀 내부의 복잡성을 설명해 준다. 아기날도는 1898년 미국의 스페인 격파에 대해 독립의 희망을 품었으며 필리핀인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 존중을 표하고자 했다. 이때 아기날도는 미국 이외에도, 중국과 스페인 역시

17) 조흥국, 「동남아시아에 대한 유럽 식민주의의 동기와 영향」, 『동남아연구』, 20(1), 2010, pp.206~207.

18) 권오신은 이 부분을 필리핀-미국 전쟁에서 필리핀의 패배 원인으로 직결시켰다. 그는 필리핀 심리학자들의 대대적인 주장인 '오랫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수동적 성향(Yesmanship)이 몸에 배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자유 독립이라는 국민적 열망이 성숙하여 있지 못했다' 라고 이 당시 대부분 피지배층을 평가하였다 (권오신, 앞의 책, 2000, p.69).

19) Pacifico A. Castro, *Emilio Aguinaldo-First Filipino President: 1898-1901*, Aguinaldo Et Les Philippines, 1981, pp.114~132.

외국인의 범주에 두었을 정도로 나라 간의 구분이 명확하였다.²⁰⁾

아기날도와 같이 중국계 필리핀인은 필리핀 사회 내에 다수 존재하였다. 일례로 20세기 초 필리핀 자치령(Philippine Commonwealth)의 부통령직을 맡고 있던 세르히오 오스메냐(Sergio Osmeña) 역시 ‘중국계’였지만, ‘중화성’을 강조하는 인물이기보다는 필리핀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평가되고 있다.²¹⁾ 필리핀에서 ‘중국계’라는 계통으로 묶인 필리핀인은 수없이 많았다. 그렇기에 필리핀에서 ‘중국계’는 빼놓을 수 없는 단어였다.²²⁾ 더욱이 ‘중국계’를 단순히 중국인의 후손 또는 중국계 이주민 정도로만 단순화할 수는 없었다. 혈통과 문화적 차이로 나타난 정체성의 문제는 필리핀 중국계를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계의 존재로 인해 지배 초기의 미국은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 중국계를 고려하여 각종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우선, 1898년 필리핀-미국 전쟁으로 인해 필리핀 내에는 20만 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했는데,²³⁾ 당시 중국계가 필리핀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생각하면 이들을 배제하고 필리핀 사회를 논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1899년 필리핀 지배권을 두고 미국은 기존의 지배층이었던 스페인의 행보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스페인의 중국인 통제를 비판하며 그 실패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중국계 혼혈과 화교들의 통제를 전제로 한 정책을 채택했다.²⁴⁾ 물론 이 정책은 단순히 필리핀 내 화교만을 견제하

20) Philip Ginsberg,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 Revolution, *Asian Study*, Vol.8, no.1, 1970, pp.145~146.

21) 안토니오 탄의 글 이외에도, 민국 총서에서도 중국과 필리핀인의 자손에 대해 언급할 때 세르히오 오스메냐, 호세 리잘 등이 언급되는 등 당시 중화권 화교사에서도 이들의 존재를 중국계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Antonio S. Tan, The Chinese Mestizos and the Formation of the Filipino Nationality, *Archipel*, vol. 32, 1986, pp.141~142) (李長傳, 「南洋華僑史」, 『民國叢書』第三編 22, 上海書店, 1943, p.92).

22) 순수하게 필리핀 원주민과 화교의 혼혈을 혈통적인 부분으로 놓고 분류하면 혼혈이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수가 상당히 많다 (李長傳, 「南洋華僑史」, 『民國叢書』第三編 22, 上海書店, 1943, p.92).

23) John M. Gates, "War-Related Deaths in the Philippines, 1898-1902." *Pacific Historical Review*, 53.3, 1984, pp.367~378.

24) Manalansan, Martin F., and Augusto Fauni Espiritu, *Filipino Studies : Palimpsests of Nation and Diaspora*,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 pp.179~196.

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그 시기와 맞물려 해외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쿨리 집단의 존재로 인해 중국계 이주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²⁵⁾ 이로 인해 필리핀 화교 집단은 미국 통치 시기에 들어와서도 압박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이민법과 같은 법률상의 통제였다.²⁶⁾

화교를 대상으로 한 이민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필리핀 사회 내부의 전체적인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필리핀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은 화교 외에도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1903년 기준 인구 조사에 의하면 필리핀 내 인종은 갈색(Brown), 황색(Yellow), 백색(White), 흑인(Negro), 혼혈(Half-breed)로 분류되었다. 혼혈은 다시 스페인계, 미국계, 중국계, 흑인계로 분류되었다.²⁷⁾ 이 중 시민권을 획득한 중국인은 40,704명이고,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황색에 속하는 중국계 혼혈은 21,209명이었다. 인구 조사의 분류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당시 전체적인 통계 내에서도 중국인과 혼혈의 차이가 간략하게나마 구분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황색의 전체 인구는 필리핀인의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이었다.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마닐라의 인구 비중이 1903년도 미국 통치 초기 기준 전체 인구의 2.8 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국인의 인구수가 필리핀 사회에 대대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²⁸⁾ 다만, 이 인구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필리핀 사회는 인종뿐만 아니라 혼혈 계통 내에서도 다양한 혈통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중국 혼혈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다양한 정치 사상관과 정체성에 대한 개개인의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필리핀의 화교는 사회적으로 그리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 다른 원주민들과 같이 대중적인 일을 많이 하였다.

25) 쿨리 계층을 하나의 위협으로 보며 중국인들을 경계하였다 (Victor Purcell, *The Chinese in south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538).

26) 李長傳, 「南洋華僑史」, 『民國叢書』第三編 22, 上海書店, 1943, p.94.

27) Felipe Buencamino Sr, *Census of the Philippine Islands Vol.2*, Census Office of the Philippine Islands, Manila, 1921, p.15.

28) Felipe Buencamino Sr, *Census of the Philippine Islands Vol.2*, Census Office of the Philippine Islands, Manila, 1921, pp.22~23.

필리핀 인구조사국은 이러한 대중적인 노동을 농업 노동, 전문직, 가사 노동, 상업 및 물류, 제조업²⁹⁾ 등 5개로 나누었다. 특히 1900년대 초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총인구의 40.4 퍼센트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농업이 필리핀 내 차지하는 중요도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09년 시기 쌀 생산량 증가라는 예상과 달리,³⁰⁾ 당시 농업 작물은 식량과는 별개로 특용 작물이 많아 중국인 사회는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계는 농업에 대한 많은 불만을 품었다.³¹⁾ 더 나아가 1900년도부터 나타난 미국의 중국인 통제는 1919년도에 들어와 부쩍 심해졌고, 이로 인해 당시 중국인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³²⁾ 이때 나타난 중국계 쌀 상인들의 존재는 당시 중국인들이 농업 이외에도 상업과 물류의 유통, 나아가 사치품 이외에도 필리핀 화교 사회에 식량 역시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³³⁾

필리핀 화교는 스페인 지배 시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代를 이어가며 필리핀 사회의 각종 구성원으로 자리잡았다. 그 과정에서 필리핀 화교 집단을 단순히 통상적인 화교로 여기기보다는 화인 또는 화예 같은 세분된 개념으로 분리할 수 있다. 물론 한국과 같이 비중화권 국가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생소하므로 보통 ‘화교’ 라는 단어 하나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화권에서 이루어진 화교 연구에서는 화교의 정체성에 따라 나타나는 성향의 차이를 보여주는 등 화교 내 분류에 대해 굉장히 익숙하다.³⁴⁾ 그렇다면 필리핀 화교에서 화교는 무엇을 뜻하는가? 1883년 정관웅이 최초로 사용한 이 용어는 王廣武의 화교사에서도 드러난다. 1870년대 청조 관리들은 이미 해외 중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했고 기존

29) Felipe Buencamino Sr, *Census of the Philippine Islands Vol.2, Census Office of the Philippine Islands*, Manila, 1921, pp.75~77.

30) 예상 쌀 재배 농작지 증가에 대한 계획이 적혀있다(暨南菲律濱華僑學生會編輯 [並出版], *菲律濱研究*, 暨南菲律濱華僑學生會, 1928, p.27).

31) 黃滋生·何思兵, 『菲律賓華僑史』,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16, pp.433~437.

32) 黃滋生·何思兵, 『菲律賓華僑史』, 2016, p.434.

33) 黃滋生·何思兵, 『菲律賓華僑史』, 2016, pp.434~438.

34) 姜興山은 필리핀 화교에 대해서 자세히 분류하고 있다. 필리핀 화교 연구에 의하면, 그는 화인, 화교 등 그 민족적 차이와 내부적 활동에 대한 집단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분류하는 모습을 보인다(姜興山, 『菲律賓華人文化重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pp.78~89).

에 무시되었던 재외 중국인에 대한 새로운 용어를 모색해야 했다. 그러면서 여러 형태의 직업, 사회적 위치 등으로 분류되던 중국계 집단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고자 만든 용어가 ‘화교’ 였다.³⁵⁾ 이를 통해 화교라는 용어도 결국 해외의 중국계 사람들의 분류를 위한 과정에서 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화교’ 라는 단어 자체가 당시 필리핀 내 만연하던 중국계 혼혈과 더불어 화교 사회의 다양성을 부각하는 용어라고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화교 내에서 분류되는 ‘화예’ 역시 미국 지배 초기 필리핀 화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화예란 앞서 언급했듯이 ‘타 국가에 오래 거주하며 그 국가의 문화와 사회적 변화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중국계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해당 국가의 구성원으로 완전히 어우러진 존재’ 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화예의 구성원은 스스로를 ‘중국인’ 으로 여기기보다는 ‘중국계’ 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³⁶⁾ 또한 국내에서도 ‘화예’ 를 19세기 전후 혹은 1949년 이후 ‘南洋’ 지역에 영구 정착하면서 발생한 후예들로 보았다.³⁷⁾ 당시 필리핀 화교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대다수의 중국계 혼혈들은 화예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화예의 대표적인 예로 필리핀 내 메스티조 중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호세 리잘이 있다. 호세 리잘 역시 중국계 혼혈이며, 그가 사망한 1896년 기준으로 그와 같은 중국계 혼혈이 필리핀 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³⁸⁾ 특히 호세 리잘은 일루스트라도의 일원으로 중국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지녔다.³⁹⁾

35) 金鐘湖, 「 ‘중화성’ 모색을 위한 시도들 », 『중국근현대사연구』,73, 2017, pp.173~175.

36) 일루스트라도(ilustrados)와 같이 중국계 메스티조가 대거 포진되어 있던 중류층 지식인 집단 역시 자신을 필리핀인으로 보기를 바랐다. 기존의 원주민층과 지배층과의 입장을 중국계인 본인들에게도 갈게 적용되기를 바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덕훈, 「필리핀화교의 정착과 적응」, 『아시아 연구』 1, 1999, pp.24~25).

37) 金鐘湖, 「 ‘중화성’ 모색을 위한 시도들 ». 『중국근현대사연구』,73(),2017, p.174.

38) “One out of every ten people living in the Philippines today is descended from Chinese ancestors or is of Chinese racial type.” (Eufronio M. Alip, *The Centuries of Philippine-Chinese Relations*, Alip & Sons Inc. Manila, 1959, p.95).

39) 호세 리잘은 여러 매체에서 중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거부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Alfonso O. Ang, “Rizal’s Chinese Overcoat”, *Chinese Commercial*

이 외에도 1898년 미국이 필리핀 전역을 점거한 이후, 탈락(Tarlac) 지역에서 필리핀 농무부(secretary of agriculture)를 통해 발견된 중국인 상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 역시 필리핀 중국계가 필리핀 사회 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당시 필리핀 사회의 대표 격이었던 아기날도는 중국인 상점에서 나타난 문제를 인지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을 필리핀인들에 관한 사건으로서 우선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⁴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아기날도와 같은 필리핀 민족주의의 핵심인물이 중국인을 외국인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이미 필리핀 지역의 일원 중 하나로 바라보고 일을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필리핀 내무장관을 역임한 딘 우스터(Dean C. Worcester) 또한 1900년대를 전후로 한 시기 필리핀 독립 운동에 관여한 인물 중의 상당수가 중국계 또는 유럽계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⁴¹⁾ 이는 당시 필리핀의 화예 출신들도 본인의 정체성을 떠나서 중국계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했으며 이미 내부적으로 중국계라는 특성을 가지고 필리핀 사회에 적응했음을 방증한다.

물론 다른 인물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 ‘中華性’의 개념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물론 존재하였다.⁴²⁾ 그러나 앞선 예시와 달리, 중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사례 역시 존재한다. 劉亨賻라는 인물의

News Manila, 2005).

40) Dean C. Worcester, *The Philippines past and present*, New York :The Macmillan Co. 1914, p.162.

41) Dean C. Worcester, 앞의 책, 1914, pp.936~938.

42) 물론 ‘중화성’ 개념을 적용해 오랜 기간 이어진 중화권 혼혈의 정체성 문제와 화교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화예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예를 들면, 윌리엄 스키너는 해외 중국인들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국 문화를 유지한다." 라는 것이 화교 개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현실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봤다. 이는 필리핀 내의 일부 화예와 같이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중화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키너는 화교들이 중국적인 관습과 풍습에서 벗어나 외국 문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자 하였으므로 중국계 사람들이 특정한 문화를 따른다고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키너 또한 중국 이민자의 후손들이 이미 장기간의 혼혈화와 필리핀 내 사회적 동화로 인해 완전히 지역의 토착민으로 인식되는 때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스키너는 그 내부에 존재하는 복잡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G. W.Skinner, "Overseas Chinese in Southeast Asia."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321, 1959, pp.136~147).

일화는 당시 중국계 필리핀인들 중 필리핀 혁명에 대대적으로 개입한 예로서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진 바 있다. 유형부는 스페인 통치 기간부터 미군 점령 기간까지 혁명군 장교로 많은 전장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이때 필리핀 변호사 테오도르 곤잘레스의 글에 따르면 유형부는 필리핀 혁명군의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중국인들이 하는 땅은 머리를 남겨두었으며, 그의 부하인 병사들이 모두 타갈로그 사람이었음에도 중국인인 그에게 충성을 다하였다고 한다.⁴³⁾

그뿐만 아니라 유형부는 사실 이 시기 필리핀 화교의 특이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기도 한다. 앞서 일루스트라도와 같이 스페인 교육을 받아들이며 중국계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인물들이 존재한 반면 유형부는 중국계 혈통을 인정하고 중국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 동시에 다른 화예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며 두 집단 간의 교집합에 정확하게 들어갔다. 유형부는 타갈로그어, 스페인어, 영어를 필리핀에서 배우고, 당시 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다. 그리고 유형부는 명확한 중국계 성향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 리잘의 “나를 만지지 마라(noli me tangere)”나 웨방꾼(El filibusterismo)⁴⁴⁾ 과 같은 저서에서 표현된 국가의 정치적 및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는 애국적인 필리핀인 그룹에 환영을 받았다.⁴⁵⁾ 또한 유형부는 에밀리오 아기날도와 같은 중국계 필리핀인과의 각별한 사이여서 이 둘에 관한 일화 역시 많은 연구자로부터 주목받았다.⁴⁶⁾

그러나 유형부가 필리핀인으로서 독립만을 추구한 것과는 별개로, 중국계 성향이 강했던 조직인 삼합회(Triad Society) 한 분파의 수장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그의 근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⁷⁾ 이렇듯 필리핀 화교의 성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43) 黃滋生·何思兵, 『菲律賓華僑史』,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16, p.354.

44) 호세 리잘이 집필한 당시 필리핀을 지배하던 세력의 불평등한 대우와 관행을 탐구한 저서이다.

45) Gideon C.T. Hsu, *The Life and Work of General Jose Ignacio Paua*, The Annals of Philippine Chinese Historical Association, 1976, pp.45~46.

46) 유형부, 혹은 호세 이그나시오 파 우아(Jose Ignacio Paua)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중국인 외에도 필리핀인들 사이에서도 혁명을 주도한 주요 인물로 대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47) Gideon C.T. Hsu, *The Life and Work of General Jose Ignacio Paua*, The Annals of Philippine Chinese Historical Association, 1976, p.45.

정체성의 차이를 인지해야 한다. 실제로 정체성 및 본인의 근간의 차이는 앞서 예시로 나온 유형부, 아기날도와 같은 중국계 인물들에게서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른바 ‘중화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 정체성을 정리하고 살펴보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자들 외에도 당시 다양한 화교 인물들은 중국계 혈통이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스스로 끊임없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⁴⁸⁾

48) 물론 중화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문화적 혼성을 부정하는 때도 존재한다고 보는 경향 역시 나타났다. 하지만 중화성이라는 개념은 타국의 중화권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좋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병석, 「20세기 말 중국 신좌파 중화성(中華性) 담론의 전개, 의의 및 비평」,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6(1), 2017, pp.291~293).

제 2 절. 미국의 통치 정책에 대한 화교의 동향

지배 초기부터 식민 지배를 목적으로 접근한 스페인과는 달리, 미국은 지배 초 필리핀 내에 나타나는 문화와 정치 문제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필리핀 점령 직전 필리핀 사회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스페인과 혁명군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다. 이때 미국의 제국주의 사상을 지지하던 미국 해군 제독 조지 듀이는 본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행정부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필리핀 제도에 공격적인 작전을 수행하였고, 그 목표는 스페인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리핀 제도를 미국 영토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결정하고 처리해야 할 정책의 문제이지, 일개 해군 장교인 본인의 의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⁴⁹⁾

당시 필리핀 지배권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듀이 제독은 필리핀 지배에 대해서 강압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는 그가 군인으로서 정치적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도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아기날도는 듀이의 발언을 미국의 입장으로 생각했지만, 이는 그의 오해였다는 사실이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⁵⁰⁾ 그러나 미국 내부에서는 필리핀의 지배에 대해 단일한 입장만을 보이지는 않았다. 상원 의원 조지 F. 호어(George F. Hoar)는 필리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을 정복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의회 스스로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¹⁾

49) "...my instructions sent by Acting-Secretary Roosevelt had said that I was to conduct offensive operations in the Philippine Islands. My idea first and last was to obey them in spirit and letter until I was otherwise ordered. While we remained at war with Spain our purpose must be to strike at the power of Spain wherever possible. The question of making the Philippine Islands United States territory was one of policy for the nation at home to decide, which had nothing to do with my duties as a naval officer."

(George Dewey, *Autobiography of George Dewey: admiral of the navy*, New York : Scribner, 1913, p.239).

50) 권오신, 『미국의 제국주의: 필리핀인들의 시련과 저항』, 문학과지성사, 2000, p.45.

51) Norman A. Graebner, *Ideas and Diplomacy: Readings in the Intellectual Tradition of American Foreign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필리핀의 지배에 대한 관점이 단일하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초기 필리핀 위원회의 성격은 제국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 그 이유는 우선 위원회 자체가 필리핀-미국 전쟁 때 구성되었다는 사실과 위원회 초기 위원들은 대부분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인물들이 많다는 것에서 기인하였다.⁵²⁾ 실제로 위원회가 조직된 이후 미국은 필리핀 식민 지배를 준비하는 형태로 필리핀 내부에 깊숙이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사회 구성을 지켜본 미국은 필리핀에는 다양한 인종이 존재함을 알았고 정확하게 필리핀 내부를 파악하고자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군정 체제에서 민정 체제로 전환하였다.⁵³⁾

필리핀 내 중국 사회의 다양성은 스페인 시기부터 이미 존재했다. 이는 크게 스페인어와 종교적 사상을 이익 추구 목적이 아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귀화를 선택한 집단과 중국 문화권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문화권 유지를 강조한 집단은 내부의 공고한 입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미국 지배시기에 들어와서도 앞서 본 3가지 유형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부 화교 사회는 중화권의 성향이 매우 강한 형태가 되었으며, 화교 세력 중 일부는 문화적인 측면을 넘어 정치적인 측면에도 중국에 관해 관심을 표출하였다. 또한 신해혁명이 발발하던 시기 필리핀 화교들은 본토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일부 화교는 중국 내부의 정치적 사상에 대한 다양한 사상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집단으로는 필리핀 화교 사회에 존재하던 保皇派와 革命派가 있다.⁵⁴⁾

1899년부터 등장한 두 집단은 중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강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두 집단에 속하는 지식층 모두 화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을 전파하고자 했다⁵⁵⁾. 이들은 중국인에 대한 근간을 토대로 필리핀 사회 내 화교 네트워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혁명파의 鄭漢淇는 필리핀 화교 사회에서 의사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녔던 인물로, 쑨원의 정치사상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鄭漢淇는 미국 식민 당

pp.358~359.

52) 권오신, 앞의 책, 2000, pp.76~77.

53) 권오신, 위의 책, 2000, pp.74~75.

54) 黃滋生·何思兵, 『菲律賓華僑史』,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16, pp.465~466.

55) 黃滋生·何思兵, 앞의 책, 2016, pp.468~471.

국이 필리핀 내 위생 당국의 일원으로 임명할 만큼 능력이 뛰어난 의사였다.⁵⁶⁾ 그러나 그는 직업의 본분을 따르기에 앞서 필리핀 내 삼민주의를 알리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公理報』를 창간하고 필리핀 화교 사회 내에서 혁명당의 의지를 전파하고자 했다.⁵⁷⁾

이처럼 중국계 인물들의 계몽 활동과 문화적 유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통해 당시 일부 중국계 인물들의 사회적 이해도와 중국 정계에 대한 지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미국 필리핀 위원회(The Philippine Commission)가 바라본 중국인은 지적인 부분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필리핀 위원회는 제이콥 셔먼(Jacob Schurman)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필리핀의 동태를 살피고자 1899년 1월에 매킨리 대통령의 지시하에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필리핀 위원회의 대대적인 목적은 필리핀 사회의 동향 파악이었다. 그리고 1년 뒤인 1900년 1월에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를 중심으로 꾸려진 2차 위원단을 통해 제2차 필리핀 위원회가 형성된 이후, 위원회는 내부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더불어 당시 필리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⁵⁸⁾ 이때 위원회에서 미국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단순히 필리핀 내 상황 보고를 넘어 사회 내 여러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보고서에는 중국인에 대한 평가 역시 포함하고 있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필리핀 내 중국계 세력에 대한 여러 교수나 사업가의 평가가 담겨있었으며,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제이콥 셔먼이 영국 상인 에드윈 H. 와르너 (Edwin H Warner)와 나눈 인터뷰에 의하면, 스페인 세력이 중국인에게 제재를 가했던 것처럼 미국 역시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제한을 두어야 하며,⁵⁹⁾ 중국인의 비도덕적 행위를 비판하며 중국인에 대

56) 黃滋生·何思兵, 앞의 책, 2016, p.470.

57) 洪卜仁, 『廈門辛亥風雲』, 廈門大學出版社, 2016, pp.148~149.

58) David Wurfel, *Filipino Politics: Development and Deca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pp.8~9.

59) 인터뷰에서 대답을 하는 에드윈 와르너(Edwin H Warner)는 영국계 상인으로, 중국인에게 \$50에서 \$100의 통행료를 내면서 입국에 제한을 뒤야 이들의 “독주(overrun) “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United States, Philippine Commission (1899-1900), *Report of the Philippine commission to the President. : January 31, 1900[-December 20, 1900] [Vol. 1, no. 2], 1870-1925: The*

한 강한 통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⁶⁰⁾ 필리핀 내 미국인 관리는 실제로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및 필리핀 내 중국인 제한을 가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⁶¹⁾ 또한 와르너는 중국인 쿨리들의 특성을 관찰하며, 쿨리들이 돈을 벌면 그 세력을 늘려 또 다른 중국인 쿨리들을 고용하는 등 중국인들이 상생하는 현상을 그들의 세력 확대로 파악했다.⁶²⁾ 이처럼 미국은 중국인에 대해 스페인 세력이 남겨 놓고 간 불필요한 잔재라고 생각하였다.⁶³⁾

와르너와 같은 상인 외에도 군정 담당자들 사이에서 중국인에 대한 견제를 여러 방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900년 오티스와 같이 필리핀을 미국의 영토로 보는 입장의 군정 관리자의 경우, 본인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899년 9월 중순까지, 중국 이민 문제는 불편을 초래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전에 보고했을 때 나는 이 주제가 '점령 직후 곧 고려되어야 했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이 유형의 거주민(중국계) 중 많은 사람이 마닐라의 항복을 앞두고 3년의 정치적 격동 동안 중국으로 돌아가곤 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며 안정적인 정부가 형성되는 형세를 보이자, 많은 수의 중국인들이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이에 미국 정부가 입국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을 지어본다.⁶⁴⁾

Age of Imperialism, 1900, p.18).

- 60) 위와 같음. 시장에서 추의 무게를 조작한다든지 필리핀 원주민들로부터 배척받는다는 것과 같은 여러모로 부정적인 평가를 멈추지 않았다
- 61) The Newyork Times, 1900년 2월 5일. 내용을 보면 오티스 장군의 오더(Otis' s Order) 아래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제한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중국인들은 필리핀에서 소유하던 재산 등이 입국 자료로 필요하며, 기존의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다.
- 62) United States. Philippine Commission (1899-1900), *Report of the Philippine commission to the President. : January 31, 1900[-December 20, 1900]* [Vol. 1, no. 2], 1870-1925: The Age of Imperialism, 1900, pp.17~18.
- 63) 위와 같음.
- 64) "...Until the middle of September, 1899, the question of Chinese immigration; gave annoyance. When previously reporting on this matter I said that the subject ' had to be considered very soon after occupation. Many of this class of inhabitants had returned to China during the three years of political agitation which had preceded the surrender of Manila. Now, when the United States took possession and a more stable

당시 미국은 중국계 인물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더불어 필리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인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때 필리핀의 정세는 굉장히 불안정하여 필리핀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그리고 미국의 지배층은 중국을 왕래하는 화교 및 중국계 세력의 모습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필리핀의 정당한 일원 중 하나로 보기에는 어려웠으며 필리핀 내 미국 식민 당국의 화교 집단 배척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이러한 점은 본토의 신문에서도 어느 정도 표출이 되는데, 1899년 9월 3일 자 신문과 1900년 5월 2일 자 뉴욕 타임스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다.

중국인을 배제하는 법률을 필리핀에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제너럴 오티스가 한 것은 모든 국적 이민자의 입국을 신중히 판별하면서 특히 중국인에게는 더욱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들을 걸러내는 것으로 보인다...⁶⁵⁾ 마닐라, 5월 1일 - 메이저 제너럴 오티스는 중국 이민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중국 항구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이전 거주 증명서 대신에,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들은 이전의 거주 증명과 함께 그들이 아직 필리핀에 재산이

government was predicted, they sought to return. Large numbers, too, who had never resided in the Philippines endeavored to enter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reviving trade facilities anticipated...the conclusion was reached that the application of United States Statutes controlling such immigration to United States territory furnished the best solution.” (Elwell S. Otis, *Report of Maj. Gen. E. S. Otis,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0, pp.336).

65) 오티스 장군은 중국인을 배제하는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시에 중국인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아이러니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인에 대한 입국 및 제한의 강도가 미국의 주도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It appears that, instead of applying the Chinese exclusion laws in their entirety to the Philippines, all that Gen.Otis has done in that direction is to exercise discrimination in the admission of immigrants of all nationalities, while directing especial scrutiny upon the incoming Chinese, so as to weed out all undesirable characters. If this is to be the degree of exclusion to be applied, it is believed that there will be no good bound for complaint from the Chinese Government.” The NewYork Times 1899년 9월 3일,

나 가족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⁶⁶⁾

이러한 오티스의 입장은 이른바 ‘오티스 오더(Otis Order)’ 라고 불렀다. 오티스의 이런 중국인에 대한 특별한 대처는 앞서 언급된 중국계 이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게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런 중국계 사람들에 대한 배척은 필리핀 내 중화권 사회가 갖은 반미 운동을 일으키도록 작용했다.⁶⁷⁾ 이때 단순히 상인과 같은 통상적인 중국계 이주민만을 통제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는 당시 많은 중국계 지식층의 이민 역시 금지했다.

그러나 지식층의 통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화교 중 몇몇 화인 들은 내부적으로 중국의 소식을 전하고, 이를 사회 전반적으로 전파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1903년 楊豪侶의 활동은 미국 정책이 화교 사회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지식 계층의 발전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필리핀 화교 신문업계의 개척자였던 楊匯溪의 아들 楊豪侶는 광둥 출신 중국계 화교로, 전형적인 필리핀 내부 화교 지식층이었다. 그는 일본 유학과 홍콩에서의 활동을 통해 여러 화교 지식층과 친분을 쌓았다. 楊豪侶는 이러한 친분을 토대로 홍콩의 『世界公益報』와 같은 신문을 필리핀에 발행하며 중화권 소식 및 혁명과 관련된 정보를 전파하는 노력을 기울였다.⁶⁸⁾ 이런 화교의 예시들을 통해 당시 많은 중국계 이주민들은 이미 필리핀 사회에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적응을 완료한 중국인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6) “...Manila, May 1. – Major Gen. Otis has issued an order which will have the effect of stopping evasions of the Chinese immigration laws. Instead of the certificates of former residence issued by American Consuls at Chinese ports, the Chinamen desiring to enter the country must produce proof of former residence, together with proof that they still have property or domestic interests in the Philippines. Hitherto a surprising number of Chinamen have been arriving under Consular certificates.” The NewYork Times 1900년 5월 2일.

67) 예로 黃滋生, 何思兵, 위의 책, 2016, p.430의 각주 1번 (黃曉滄主編, 『菲律賓岷里拉中華商會三十週年紀念刊』, 甲編, pp.6-71)에 의하면, 마닐라 중화상회는 1907년부터 1933년까지 화교 해관에 대한 제한 완화를 위해 끊임없이 항의하는 모습을 보인다.

68) 黃滋生, 何思兵, 위의 책, 2016, pp.471~473.

그 안에서도 중국 문화권의 성향의 다양성이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미국은 중국계 필리핀인들에 대해 동일하게 억압하고 분류하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혈통, 문화적 특성, 정체성에 대한 고찰은 미국 정부가 중국인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며, 더 나아가 필리핀 화교 문화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 내부의 요소만큼 중요한 것은 화교의 경제적 특성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화교 세력이 시장 경제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세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필리핀 역시 이러한 면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상레이의 어원인 常來(chang lai)⁶⁹⁾에서 볼 수 있듯이, 필리핀 내 화교들의 조상들은 복건성과 광둥성을 중심으로 왕래가 잦던 상인들이 많았다.⁷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필리핀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의 이주 방향성이다. 대부분 화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필리핀에 오는 것을 넘어, 필리핀 내 동향 사람이나 종친을 따라 세력을 형성하였다. 미국령 초기 필리핀에는 종친회와 같은 동향 사람 중심의 사회 집단이 많지 않았지만, 전형적인 화교 세력인 종친회의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심지어 이들은 내부적으로 이사회와 같은 체계를 구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⁷¹⁾ 이 외에도 내부에서 靑年組와 같은 청년들을 위한 사무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들의 중화권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여러 대회 등을 통해 단합을 도모하고 해외에 존재하는 다른 종친회와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하였다.⁷²⁾

그리고 종친회의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계 혈통은 화교 세력이 필리핀에서 동화되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신경 쓰고 있는 요소였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혈통, 즉 본인의 뿌리가 어디인지는 변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혈통은 국가 내 타 문화 집단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와 관련된 대

69) 그 외에도 몇몇 학자들은 호키안어로 “Seng-li” (business)를 언급하기도 한다 (“Chinese and Chinese Mestizos of Manila [electronic Resource] : Family, Identity, and Culture, 1860s-1930s,” Brill, 2010, p.357)

70) 濟陽柯蔡宗親總會, 『菲律賓濟陽柯蔡宗親總會慶祝90週年紀念特刊』, 濟陽柯蔡宗親總會, 1999, pp.175~176.

71) 姜興山, 『菲律賓華人文化重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pp.286~287.

72) 위와 같음.

표적인 예로는 추운장(Cu Unjieng)에 대한 사례 연구가 있다. 1867년에 태어난 추운장 역시 어린 나이에 필리핀에서 생활하며 필리핀 문화권에 적응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중화 문화를 중시한 전형적인 근대 화교이기도 했다. 추운장은 음식점에서부터 포목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을 거쳐 경제 활동을 하였다. 이후 추운장은 대흥유한회사(大興有限公司)를 설립하였는데 그와 협력한 사람들 모두 중국 이름을 가진 중국계 필리핀인이나 화교 출신의 인물들이었다.⁷³⁾ 추운장은 필리핀에서 성장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교권 인물들과 일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추운장은 화교 자본을 바탕으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그의 사업 규모가 마닐라를 넘어 홍콩과 같은 중화권 지역까지 확장한 것을 고려하면 중화 혈통에 대한 그의 인식이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혈통 문제와 같은 내부적 측면 외에도 화교 사회의 외부적 압박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점령 시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중국인을 배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중국인 노동자는 이 시기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미국은 자국 내 쿨리와 같은 중국인 집단을 ‘yellow horde’ 라는 표현으로 묘사할 정도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또한 이런 인식은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면서도 지속하였다. 필리핀 내 군사 총 책임자였던 엘웰 S. 오티스(Elwell S. Otis)는 1900년대 초부터 이른바 ‘오티스 오더(Otis Order)’ 를 적용해 중국계 인물들을 제한했다. 이 명령의 취지는 필리핀 원주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지만, 중국계 노동자들이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여 미국 국내로 대거 진출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⁷⁴⁾

이러한 오티스의 중국인의 견제는 내부적으로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되었던 세르히오 오스메냐(Sergio Osmena)의 경우,

73) Richard Chu, “Chinese and Chinese Mestizos of Manila [electronic Resource] : Family, Identity, and Culture, 1860s–1930s,” *Brill*, 2010, p.371.

74) Manalansan, Martin F., and Augusto Fauni Espiritu, “Filipino Studies : Palimpsests of Nation and Diaspora”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 pp.180~183.

1878년에 태어나 필리핀에서 자랐다. 그는 화인으로서 오티스의 중국인 배척이 진행되던 시기에 필리핀에 살았다. 그의 주요 업적은 1944년부터 1946년까지 필리핀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것이다. 그는 어머니 후아나 수이코 오스메냐(Juana Suico Osmena)와 당시 화교 상업계의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 오문조(吳文鮎) 아래에서 태어난 사생아였다. 그리고 그의 젊은 시절을 통해 오티스의 중국인 견제의 영향이 확인되는데, 세르히오 오스메냐의 아버지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알려질 경우, 그의 교육과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세르히오는 중국인 아버지 중심이 아닌 그의 필리핀 어머니 아래서 필리핀 거주를 선택하였다.⁷⁵⁾ 세르히오 오스메냐의 성장기에도 중국계라는 점이 그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것을 고려하면, 당시 그와 같은 많은 화인 역시 비슷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중국계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쳐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경우, 많은 화교 혹은 화인들은 자연스럽게 필리핀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중국계를 대상으로 적용된 혈통에 대한 문제와 미국의 정책은 화교 사회가 필리핀 내에 정착하고 그 형태를 구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렇기에 필리핀 화교 사회의 구성원은 그 성향을 단정 지어서 특정화할 수 없다. 즉, 중국 성향이 비교적 열은 화예와 자신들의 정체성이 중화권에 더욱 밀착해 있는 화교의 차이는 명확히 존재하였다. 특히 화예의 경우, 호세 리잘처럼 필리핀 내 엘리트 집단의 일원으로서 다른 화교 인물들과는 정체성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는 예도 있다. 일루스트라도(ilustrado)의 가장 대표격 일원인 호세 리잘은 지인들과 대화를 통해 정책 도입과 체제 변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그가 중국계로서가 아닌, 필리핀인으로서의 입장을 강조하며 혈통이나 신분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⁷⁶⁾

반면에 근대에 정착한 화교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화교의 몇몇 집단은 화인 청년들이 필리핀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화 전통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75) 莊國土, 『菲律賓華人通史』, 廈門大學出版社, 2012, pp.280~282.

76) Carlos Quirino, "The First Filipino: A Biography of Jose Rizal by Leon Ma. Guerrero", *Guerrero Publishing*, 2010, p.75.

동향회와 같은 중국식 사회 집단을 만들었다. 동향회 및 종친회의 초기 목적은 생활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화교들을 지원하며, 생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⁷⁷⁾ 그리고 이런 종친회의 주된 설립 목적은 중국 청년들을 타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의 경우, 종친회의 설립 목적에는 중국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인지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⁷⁸⁾ 또한 “살아서는 중국인, 죽어서는 중국 귀신”이라는 유명한 격언이 당시 사회에도 퍼지며 필리핀 화교 사회 내에 중화사상에 대한 충성심이 존재했다.⁷⁹⁾

요컨대, 미국이 필리핀에 행한 정책은 본토에서의 중국인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화교정책에 한해서 미국은 중국인에 대해 통제하고자 하였고, 이는 중국계라는 광범위한 범주의 필리핀인에게도 적용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한마디로 필리핀 화교 집단을 이해하면서 통계를 통한 분류는 가능할지언정 정책상으로는 완전한 분류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화교 내 모든 사람은 중국 혈통이라는 내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동시에 일부는 중화 문화를 완전히 버리고자 노력한 예도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 지배 시기부터 강력히 제한된 중국인 입국 및 중국계 인물의 제한은 중국계 집단의 반발을 일으켰고, 신문사와 같은 문화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었다. 나아가 종친회 및 동향회와 같은 집단 역시 사회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화교들의 결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77) 姜興山, 『菲律賓華人文化重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p.290.

78) 姜興山, 『菲律賓華人文化重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p.362.

79) 위의 같음. “生是中國人, 死是中國鬼.”

제 3 장. 필리핀 위원회의 화교 정책과 화교의 대응

필리핀 화교를 구성하는 화교, 화인, 화예는 모두 중국인 혈통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혈통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나 문화 집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참고 요소로 여겨진다. 미국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민 정책의 기반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했듯이 필리핀 내 화교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그들을 분류함에 있어 난점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계 혈통을 참고하여 중국인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특히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법 정책과 더불어 필리핀 위원회의 전체적인 성격 및 설립 목적에서 두드러졌다.⁸⁰⁾

1899년 1차 필리핀 위원회(Philippine Commission)는 초기 오티스 장군 아래 시작된 군정 이후 생긴 필리핀 주도 집단이다. 초기 위원회의 세부적인 설립 목적은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 체도를 획득한 이후 필리핀의 행정 체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었다.⁸¹⁾ 뒤를 이어 1900년 초 태프트를 통해 2차 필리핀 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미국은 필리핀인들에게 민주주의를 심어준다는 명분 아래 정책 도입, 교육 체계 등에 영향을 주었고, 필리핀 사회의 지식 생산과 교육 체계의 현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⁸²⁾ 필리핀 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국가 내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미국 정부에 보고하였다. 보고서에는 단순한 수치 이외에도 국내에 존재하는 문제나 주제에 관한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필리핀 사회와 정치 체계의 현대화에 이바지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미국의 지배력 확장을 위해 초석을 다

80) United States. Philippine Commission (1899-1900), *Report of the Philippine commission to the President. : January 31, 1900[-December 20, 1900]* [Vol. 1, no. 2], 1870-1925: *The Age of Imperialism*, 1900.

81) 권오신, 『미국의 제국주의: 필리핀인들의 시련과 저항』, 문학과지성사, 2000, pp.117~118.

82)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과 더불어 1902년 필리핀법과 1916년 존스법(The Jones Law of 1916)이 제정되기까지 필리핀 지배의 장기화를 노리는 수단으로도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권오신, 앞의 책, 2000, p.121).

지는 기반이 되었다.⁸³⁾

미국의 관점에서 필리핀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인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필리핀 위원회는 스페인의 지배 체제로부터 필리핀을 이어받은 처지이고, 당시 필리핀 내 존재하는 복잡한 성격의 혼혈과 중국계 이주민들의 성향 분석은 사회 체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 특히 화교라는 개념은 원초적으로 혈통을 논해야 했으므로 화교가 미국 지배 초기에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했다.

실제로 미국이 필리핀 내 정책을 책정하는 데 있어 혈통을 고려한 이유는 인구수와도 관련이 있다. 스페인에서도 필리핀 내 인구를 통제함에 있어 여러 인종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그 뒤를 이어 필리핀을 지배한 미국 역시 중국계의 통제를 위해서는 인구 조사를 통해 필리핀 내 구성원을 꾸준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나타난 1918년 필리핀 입법부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마닐라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 수는 43,802명이었다. 이는 2위를 차지한 일본인의 6배에 가까웠다.⁸⁴⁾ 더욱이 그중 17,760명이 마닐라 한 도시에 거주할 정도로 중국인의 규모는 엄청났다.⁸⁵⁾ 게다가 중국인이 포함된 지방 자치단체(municipality) 수 역시 최다인 699개로 기록되어 일반적인 지방 자치단체 수의 2~3배가량이었다.⁸⁶⁾ 이처럼 당시 정부에서 조사한 중국인 인구는 상당히 많았다. 더욱이 이러한 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혼혈 중 중국계 혈통이 섞인 사람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계가 당시 필리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 정부의 우려는 당연한 것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지배 초기 중국계가 포함된 황인종 성비의 비율이었다. 1903년 기준 인구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내 전체 인구의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각각 50.04와 49.96으로 균등한 형태였다.⁸⁷⁾ 이런 균일한 인구

83) David Berstein, *The Philippine Story*, Farrar, Straus and Company, New York, 1947, p.85.

84) 일본은 7,806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Felipe Buencamino Sr, *Census of the Philippine Islands Vol.2, Census Office of the Philippine Islands*, Manila, 1921, p.32).

85) Felipe Buencamino Sr, *Census of the Philippine Islands Vol.2, Census Office of the Philippine Islands*, Manila, 1921, p.32.

86) Felipe Buencamino Sr, *Census of the Philippine Islands Vol.2*, 1921, p.33.

87) Felipe Buencamino Sr, *Census of the Philippine Islands Vol.2*, 1921, p.35.

성비는 1918년에도 지속해서 나타났는데, 이때에도 성비는 50.25와 49.75로,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중국계의 안정적인 인구 성비와는 별개로 필리핀 내 황인종 성비에서 극단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아래 <도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인과 일본인이 포함된 황인종의 경우 남성이 93.1%인데 반해 여성은 6.9%에 불과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시민권에 대한 부분인데 중국인과 비슷하게 일본인 역시 남성 88.4, 여성 11.6으로 남성이 더 높은 성비 비율을 하고 있었지만⁸⁸⁾ 한 자릿수의 성비를 가진 국적은 중국인이 유일하다는 것이었다.⁸⁹⁾

88) 위와 같음.

89) Felipe Buencamino Sr, Census of the Philippine Islands Vol.2, 1921, pp.35~36.

(도표 2: 필리핀 내 인종, 시민권 현황.)

인종	비율		퍼센트(총인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황인종	93.1	6.9	1.0	0.1
백인종	69.3	30.7	0.2	0.1
흑인종	52.9	47.1	0.1	0.1
혼혈	51.9	48.1	0.4	0.3
브라운 인종	50.0	50.0	98.3	99.4

(Census of the Philippine Islands Vol.2 Race 부문에서 발췌.)

필리핀 시민권	비율		퍼센트(총인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중국인	92.9	7.1	0.9	0.1
일본인	88.4	11.6	0.1	(*)
영국인	75.8	24.2	(*)	(*)
스위스인	72.0	28.0	(*)	(*)
스페인인	70.0	30.0	0.1	(*)
미국인	66.7	33.3	0.1	0.1
독일인	65.4	34.6	(*)	(*)
필리핀인	50.0	50.0	98.8	99.8
프랑스인	47.8	52.2	(*)	(*)
기타	70.9	29.1	(*)	(*)

이러한 성비 차이를 초래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페인령 시기의 중국인 동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혼혈 과정과 관련되었다. 스페인은 지배 시기가 끝날 때까지 중국인 인구수를 통제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계의 통제가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스페인이 자행한 학살에서 드러난 바 있다.⁹⁰⁾ 그리고 스페인 정부는 중국인 남성 상인은 받아들여되 그들의 가족인 여성의 입국은 제한하기도 하였다.⁹¹⁾ 이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이 해금 시기에 중국계 이주민들의 해상

90) 姜興山, 『菲律賓華人文化重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p.63.

91) Richard Chu, “Chinese and Chinese Mestizos of Manila”, 2010.에서 인용.
스페인인은 중국계 이주민들을 향한 탄압을 지속해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세

경로를 제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가족 전원이 상업 목적으로 필리핀에 이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중국인 성비의 극단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오티스의 통제 아래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이 실행되었고, 중국인 인구수에 대한 우려 역시 미국 사회 전반으로 퍼져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중국인에 대한 이런 우려는 필리핀 지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1850년대를 기점으로 캘리포니아에 많은 중국인이 이주했는데, 이때 쿨리(Coolie)라 불리는 중국인들이 미국 본토에 대거 나타났다. 쿨리는 타 국가에 들어가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며, 타국의 노동력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들은 이른바 ‘Oversea Chinese’ 혹은 ‘Chinese Diaspora’ 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한 국가에서 오래 거주하기보다는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가진 한 명의 ‘중국인’ 으로 인식되었다.⁹²⁾

이런 쿨리의 경제적 특성은 흔히 ‘화교’ 라고 불리는 중국계 집단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당시 미국 내 중국인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875년 미국 내 쿨리의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페이지 법(Page Law of 1875)이 도입되었고 중국인 가족에 대한 통제가 미국 전역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⁹³⁾ 이후 1882년에 중국인 배척법이 처음 미국 본토에 도입되었다.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사회에 끼치는 불안감 때문이었

력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 중국계 구성원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렇기에 중국계 이주민들은 살아남았고, 초기 미국령의 입장에서 남아 있는 중국계 인원들은 스페인의 실패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가 된다(Twitchett, Fairbank, Twitchett, Denis Crispin, and Fairbank, John King.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1978.를 재인용함).

92) Richard Chu, “The ‘Chinese’ and the ‘Mestizos’ of the Philippines: Towards a New Interpretation”, *Philippine Studies*, Vol. 50. No. 3, Ateno, 2002. 이외에도 Leo Suryadinata, “Southeast Asia's Chinese Businesses in an Era of Globalization : Coping with the Rise of China”,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ISEAS)*, 2006 참조.

93) 43rd United States Congress에서 발행했던 Public Law 43-141, 1875년 3월 3일에 허가된 Sec 141번 5번째 Sec에 기재된 내용 중, 불법적인 입국, 성매매와 같은 이유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제한을 언급하는데, 이 당시 중국 여성에 제한을 미국 내 중국인 인구의 증가 우려로 인한 법적 제한이라고 보고 있다 (The 43rd United States Congress, An Act supplementary to the acts in relation to immigration, United States, 1875).

다.⁹⁴⁾ 이때 인종 차이 외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중국인을 배제하는 흐름이 미국 본토에서 대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⁹⁵⁾ 요컨대 중국 인구의 성비 극단화는 스페인령 시기의 혼혈 정책과 미국 지배 시기의 중국인 인구 통제 정책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 본토에서 나타난 중국인에 대한 우려와 앞선 필리핀 인구조사국의 중국 인구의 분석 통해 유추할 수 있었던 스페인의 화교 정책을 통해 당시 필리핀 내 화교 구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현상으로 인해 필리핀 위원회 역시 화교에 대한 관찰과 더불어 그들 존재에 대해 우려하였다. 이는 미국이 스페인의 혼혈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스페인의 중국인 인구 통제에는 동의하는 태도를 표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⁹⁶⁾ 이 외에도 필리핀 위원회 측은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 중국인에 대한 관찰을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인 인구가 외국인 인구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상대적으로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중국계 이주민들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인들이 도박을 좋아하고 치안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⁹⁷⁾

중국인 인구수에 대한 우려는 보고서 외에서도 나타났다. 2차 필리핀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임했던 태프트(Taft) 역시 필리핀 내 중국계 인구수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 태프트는 중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짧게 보면 도로, 철도, 농작지 건설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에게 불만을 야기하는 등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⁹⁸⁾ 태프트의 평가가 주목되는 이유는 그의 정치적 위치 때문이었

94) 오영인. 「미국 1870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70)과 이민자들 - 19세기 중국인 쿨리(Coolie)를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56. 2019, pp.273~274.

95) Manalansan, Martin F., and Augusto Fauni Espiritu, *Filipino Studies : Palimpsests of Nation and Diaspora*,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 pp.180~181.

96) United States. Philippine Commission (1899-1900), *Report of the Philippine commission to the President. : January 31, 1900[-December 20, 1900] [Vol. 1, no. 2], 1870-1925: The Age of Imperialism*, 1900, p.154.

97) United States. Philippine Commission (1899-1900), *Report of the Philippine commission to the President*, 1900, pp.153~154.

98) Charles J. McCarthy, *Chinese Coolie Labor Minimal in Philippines*, The Annals of Philippine Chinese Historical Association, 1976, p.21.

다. 오티스가 군정 담당자였다면, 태프트는 대통령이 직접 지정한 필리핀 내 민정 담당자로서, 당시 필리핀 내 미국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알 수 있듯, 태프트와 오티스의 지배 방식 역시 명확히 차이가 있음에도 중국인에 대한 태도에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사람의 중국인에 대한 배제 및 필리핀 내 중국계 규제는 정책상으로 드러났다. 1903년 3월에 태프트 지배 체제 아래 등장한 법령 702(Act 702)를 통해 태프트 역시 오티스와 중국인에 대한 태도가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⁹⁹⁾ 이 법안은 중국인의 필리핀 제도 등록을 규제하였으며, 중국인 및 중국계 사람들이 미국, 그리고 미국 관할하에 있는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였다.¹⁰⁰⁾ 그리고 이 법률 12장을 살펴보면 입국하려는 중국인에 대한 정의가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있다. 단순히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세탁소 종업원, 광산업, 어업, 행상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인은 물론 미국 연방 법원과 미국 재무부의 판례와 규정에 따라 해석되는 의미의 “상인”에 대해서도 명백히 규제하였다.¹⁰¹⁾

99) “...An Act to Regulate the Registration of Chinese Persons in the Philippine Archipelago, and to Carry into Effect and Enforce the Provisions of Section Four of the Act of Congress Approved April Twenty-Ninth, Nineteen Hundred and Two, Entitled ‘An Act to Prohibit the Coming into and to Regulate the Residence within the United States, Its Territories, and All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of Chinese Persons and Persons of Chinese Descent.’ ” (The Philippine Commission, Act No. 702, Philippine, March 27, 1903).
<https://issuances-library.senate.gov.ph/legislative%2Bissuances/Act%20No.%20702>(검색일: 20230705).

100) 그들의 거주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01) “Act.SEC.12. The word ‘laborer’ or ‘laborers’ wherever used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mean both skilled and unskilled manual laborers, including Chinese laundrymen and Chinese employed in mining, fishing, huckstering, peddling, or taking, drying, or otherwise preserving shell or other fish for home consumption or exportation. The term ‘merchant’ as employed in this Act signifies a person engaged in buying and selling merchandise at a fixed place of business, which business is conducted in his name, and who during the time he claims to be engaged as a merchant does not engage in the performance of any manual labor except such as is necessary in the conduct of his business as such merchant. The definition

당시 화교 사회의 중심적인 경제 활동이 노동력 제공과 물건을 사고파는 ‘상업’ 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중국인에 대한 규제는 강력하게 그들을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법률에서 적용하는 상인의 범주가 너무 넓고, 상업에 대한 견제와 ‘상인’ 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자, 1909년 필리핀 내 中華商會는 이런 법률에 대한 불합리함을 표출하였다.¹⁰²⁾ 그리고 1년 뒤인 1910년에 이르기까지 화교 상인들은 지방 재판에 끊임없이 ‘상인’ 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요청했고, 10개월의 시간과 7,000페소가 넘는 비용을 재판에 사용하였다.¹⁰³⁾

앞선 화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1900년대부터 나타난 필리핀 위원회의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대놓고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러한 흐름은 1910년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종합적으로 위원회는 화교의 경제적 성향이 필리핀 사회 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통상적인 매매를 통해 경제적 순환이 일어나기보다는, 중국인 이주민들은 필리핀 내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이후 그 돈을 들고 그대로 중국으로 복귀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인들이 필리핀 내 시장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¹⁰⁴⁾ 또한 1900년도부터 미국은 콜리 출신의 부지런함은 인정하지만 이와 별개로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화교의 경제적 독점의 위험성이 있음을 관측하였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산업이 필리핀 내에 여럿 존재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목재 산업이었다.

필리핀 목재 산업은 앞서 미국이 도출해 낸 중국인의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1901년 당시 46개의 제재소가 필리핀에 존재하였는데, 그중 21개는 중국인이 운영하였다.¹⁰⁵⁾ 흥미로운 점은 스페인인, 미국인, 필리핀

of ‘laborer’ and ‘merchant’ set out in this section shall receive the same construction as that given to it by the Feder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ulings and regulations of the Treasury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 (The Philippine Commission, Act No. 702, Philippine, March 27, 1903).

102) 黃滋生·何思兵, 『菲律賓華僑史』,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16, p.432.

103) 위와 같음.

104) 黃滋生·何思兵, 『菲律賓華僑史』, 2016, pp.152~155.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계 상인들이 소매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105) Eufronio M. Alip, *The Centuries of Philippine-Chinese Relations*, Alip &

인이 운영하는 제재소는 주로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었지만, 중국인이 운영하는 21개의 제재소는 전부 마닐라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이다. 목재 산업의 운영에서 알 수 있는 중국인의 특성은 우선 화교가 경제적으로 독점적인 성향이 강해 한 번에 한 분야의 산업에 자리를 잡으면 다른 원주민이 쉽게 끼어들 수가 없었다. 또한 같은 중국계와 뭉치는 경향으로 인해 마닐라와 같은 경제력이 강한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상업 활동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화교 사회가 빠른 속도로 세력이 커질 수 있었다. 이때 중국인이 목재 산업 외에도 가담한 사업이 매우 많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태프트와 필리핀 위원단의 우려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다.¹⁰⁶⁾

실제로 중국인이 야기하는 이러한 경제적 현상은 필리핀 내 최저 임금의 저하로 이어졌으며 이는 기존의 원주민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영향을 줌에 따라 이들의 불만이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⁰⁷⁾ 태프트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처럼, 미국 측에서 바라본 화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일종의 불안정성을 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였다. 즉, 스페인령 시기부터 필리핀 식민지의 요지였던 마닐라가 원초적으로 경제적인 이점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부 시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 화교는 미국 측에서도 그리 달갑지 않은 세력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중국인뿐 아니라 필리핀 내 중국인 혼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배척 정책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필리핀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중국인과 그 후손들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시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기술하고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인들이 대체로 많은 문제를 사회에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¹⁰⁸⁾

Sons Inc. Manila, 1959, pp.90~91.

106) 1930년에 종합된 통계에 의하면, 중국계가 필리핀 내부에 투자한 산업은 상업, 공업, 농업 이외에도 금융업, 광업, 어업, 교통업, 토지 및 부동산 등이 있다 (夏誠華, 『菲化政策對華僑經濟之影響』, 中華民國對海外華人研究學會叢書第七種, 2003, pp.48~49).

107) 위와 같음.

108) United States. Philippine Commission (1899-1900), *Report of the Philippine commission to the President. : January 31, 1900[-December 20, 1900] [Vol. 1, no. 2], 1870-1925: The Age of Imperialism, 1900*, pp.154~155.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미국 정부가 규정한 화교의 범위이다. 1900년대 초 오티스부터 시작된 통제 정책의 대상이 되는 화교의 범주는 극히 모호했다. 1910년 이후 필리핀 위원회에 의해 순수 중국인은 물론 중국인 혼혈도 중국인 범주에 포함되어 법률 적용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미국 이전의 지배 세력이었던 스페인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스페인의 피지배층에 대한 인식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작성한 필리핀 내 교회 지구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시기 원주민과 중국계 혼혈(Chinese mestizo)의 비용에 대한 차이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인(Chinese)과 중국계 혼혈(Chinese mestizo)이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⁹⁾ 이처럼 두 집단의 차이점이 위원회로부터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었음에도 정책 도입 시점에 중국계가 동일시되었다는 점은 중국인 통제 정책이 섬세하기보다는 넓은 범주로 강화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중국계 인물 배척과 관련된 자료는 태프트 시기 미국 정부에 제출된 1903년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간 보고서의 제3부의 내용 중, 외국인 제한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9) United States, *Lands held for ecclesiastical or religious uses in the Philippine islands, etc.*, Washington Government Print, 1901, p.208.

(도표 3: 필리핀 위원회 4차 연간 보고서에 기재된 1899년에서 1901년 입국 거부 통계)¹¹⁰⁾

월(Month)	국적					총합
	중국인	오스트리아인	영국인	러시아인	불명 (Unknown)	
1899년	266명			30명		296명
8,9,10,11,12월						
1900년	407명	5명	1명	1명	4명	418명
1,2,3,4,5,6,7,8,9,10,11,12월						
1901년	687명	21명	4명	1명	2명	715명
1,2,3,4,5,6,7,8,9,10,11,12월						

(Bureau of Insular Affairs, War Department, Fourth Annual Report of the Philippine Commission 1903 part 3,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4, pp.526-528)

연간 보고서에서 나타난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이다. 우선 중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가 다른 국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제한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연간 보고서에서 표기된 인종의 분류이다. 기존의 필리핀 위원회에서 기재한 다양한 인종의 분류와는 달리 연간 보고서에서는 필리핀 내의 다양한 인종의 분류를 볼 수 없었다. 특히 중국인에 대한 분류가 여러 가지로 진행되었던 1901년도의 보고서와는

110) 1902년부터는 터키인, 일본인, 스페인인, 인도인 등이 추가되지만, 중국인에 대한 세부 분류는 여전히 안 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연간 보고서에서는 입국 제한을 받은 중국인에 대해 오로지 “중국인” 하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중국계 혼혈과 같은 세부적인 분류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¹¹¹⁾

이런 세분화가 되지 않은 모습은 연간 보고서 이외에도, 당시 여러 재판 결과를 통해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베니토는 1880년에 필리핀에서 태어난 중국 혼혈로 아버지가 중국인인 필리핀 국적의 소유자였다. 베니토는 11살까지 필리핀에서 거주한 뒤 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성인이 되어 시민권을 요구하며 필리핀에 입국했지만, 필리핀 당국은 베니토의 입국을 제한했다. 동시에 베니토를 필리핀 국적이 아닌 중국에서 온 중국계 이방인으로 치부하며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비록 베니토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필리핀에 입국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필리핀 내부에서 온전한 필리핀인으로 분류되기보다는 중국인으로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¹¹²⁾.

에우제니오 파스쿠알 로렌초라는 화교 역시 1910년도에 겪은 입국 관련하여 비슷한 판결을 받았다. 먼저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에우제니오는 순수 중국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혼혈 화교였다. 그의 아버지 역시 마르셀리노 우이쥬라는 이름의 혼혈 계통의 중국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필리핀 원주민 출신의 여성이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에우제니오는 15살까지 마닐라에서 거주하다가 몇 년간 중국에서 거주한 이후 1908년에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왔으나 미국 측에서는 그를 중국인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즉, 미국은 그에게도 다른 순수 중국인들과 같이 배제법(Exclusion Act)을 적용하여 여러 가지 증빙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¹¹³⁾.

필리핀 혼혈에 대한 미국의 입국 제한은 계속되었다. 1900년대 초 입국을 거부당하고, 1912년에 입국에 관한 문제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된 트랜퀼리노 로아(Tranquilino Roa)의 경우, 법정은 중국인 배척법 등을 고려하여 그녀의 상황을 검토한 후 입국과 시민권에 관해 결정을 내렸다.¹¹⁴⁾ 필리핀

111) 도표 3의 내용을 참고함.

112) Richard Chu, 위와 같은 책, pp.338~339.

113) Richard Chu, “Chinese and Chinese Mestizos of Manila [electronic Resource] : Family, Identity, and Culture, 1860s–1930s,” Brill, 2010, p.337.

에서 출생한 트랜퀼리노는 속지주의에 기초한 미국 국적법에 따라 필리핀인으로 인정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중국인이었고 1910년까지 중국에서 거주했다는 이유로 인해 중국인으로 판정되어 결국 필리핀 입국이 거부되었다. 물론 이 판결은 이후 1912년에 들어와서 오심이었음이 표명되었다.¹¹⁵⁾ 정체성과 성장 배경상 전형적인 화예였던 그녀의 사례를 통해 당시 미국의 법률에서 중국인의 범주는 폭넓게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은 순수 중국 이주민뿐 아니라 혼혈까지도 중국인으로 간주하면서 필리핀 화교의 범위를 폭넓게 보았다.¹¹⁶⁾ 물론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인과 중국계를 부정적으로 주시하고 있었던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미국 지배의 한 축을 담당하던 오티스의 배척 제도는 실제로 여러 보고서에서 지속해서 언급되었으며, 필리핀 위원회 회의록을 볼 때 중국인에 대한 증명서 발급과 시민권 부여 자격 심사가 엄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¹⁷⁾ 이를 통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중국인에 대한

114) 앞서 언급된 중국인 배척법 이외에도 정치법이 영향을 미치는 신분, 외국인과의 결혼, 부모의 국적, 특정 국적 포기에 대한 권리, 법률적 해석, 미성년자의 경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다 (Tranquilino Roa v. Insular collector of custom, G.R. No. L-7011 1912.(검색일:20230507)).

115) “1. CITIZENSHIP; CHINESE EXCLUSION LAWS NOT APPLICABLE TO CITIZENS OF THE PHILIPPINE ISLANDS. — R. was born in lawful wedlock in the Philippine Islands July 6, 1889, his father being a native of China and his mother a Filipina. His father was domiciled in this country until the year 1895, when he went to China and never returned, dying there about 1900. In May, 1901, R., who was then a minor, was sent to China by his widowed mother for the sole purpose of studying, and returned in October, 1910, being then about 21 years and 3 months of age. He was denied admission by the board of special inquiry, whose decision was affirmed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n habeas corpus proceedings. Held: Error to hold that he was not a citizen of the Philippine Islands.” (Tranquilino Roa v. Insular collector of custom, G.R. No. L-7011 1912).

116) 리차드 추의 글 중, ‘Chinese’, ‘Chinese Person’, ‘Chinese race’, ‘a person of Chinese descent’ 등 용어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당시 미국 지배층에서 배척법이 적용하는 중국인의 범주가 적혀 있다(Richard Chu, “Chinese and Chinese Mestizos of Manila [electronic Resource] : Family, Identity, and Culture, 1860s-1930s,” Brill, 2010, p.289.에서 사용된 각주 재인용).

117) 첫째, 1898년 8월 이전에 섬을 떠난 중국인들 중 현재까지 섬 밖에서 지낸 사람들로써, 오티스 장군(General Otis)의 명령에 따라 허용된 연장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섬에 입장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1898년 8월 이후 섬을 떠난 중국인들의 귀환은 필리핀 제도의 항구 징수관이 출발 시 발급한 증명서에만 따라 허용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1910년도 이후 화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14년 제기된 후 1921년 필리핀 의회에서 통과된 簿記法(The Bookkeeping Act)은 장부를 기록할 때 중국어의 사용을 금지하였다.¹¹⁸⁾ 이 법률은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여 중국어로 장부를 기록하던 화교 상인들에 대한 필리핀 지주와 미국 지배층의 통제로 해석되기도 한다.¹¹⁹⁾ 그리고 화교 세력은 이 부당한 법률에 맞서 극복하기 위해 항쟁의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부당한 법률에 대해 화교 세력은 중화상회 주석의 연설과 같이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¹²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 측의 외부적 압박이 화교를 자극하여 화교가 그 불합리함에 대응하는 모습은 스페인 지배층에 순응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극히 대조적이었다.

정책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되는 것 이외에도 중국인에 대한 통제는 꾸준히 이어졌다. 1870년대부터 필리핀은 쌀 부족 국가로 지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인구수와 사탕수수와 같은 수출용 작물만을 대량으로 키우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¹²¹⁾ 그리고 1919년에 들어와서는 필리핀에서 심한 쌀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 그로 인해 필리핀 정부는 법령 2868과 법령 2869를 적용하여 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법령 2868은 쌀 부족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백미, 옥수수의 거래 및 판매에 대한 독점, 저장, 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었다. 반면 법령 2869는 쌀 수출

되며, 영사의 증명서에 따라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복귀가 허용되는 기간은 1년 반이며, 미국 영사관이나 다른 관리에 의해 질병이나 기타 이유로 연장이 부여되지 않는다. 넷째, 이러한 제안이 승인되면 위원회는 적절한 법률에 이를 포함시킬 것이다(United States, *Executive minutes of the U.S. Philippine Commiss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ep.1900, p.508).

118) 黃滋生·何思兵, 『菲律賓華僑史』,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16, pp.437~450.

119) 黃滋生, 앞의 책, 2016, p.437 에서도 부기법에 대해 언급되며, 필리핀 화교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李長傳, 『南洋華僑史』 『民國叢書』 第三編 22, 上海書店, 1943, p.91).

120) 황자생 역시 안토니오 S. 탄의 저서를 인용하여 가져왔다. 연설 내용의 요점은, 중국어를 이용한 부기법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명확하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이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黃滋生·何思兵, 앞의 책, 2016, p.438.).

121) Kwok chu Wong,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 Economy 1898-1941*,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4, p.113.

에 대한 금지 조항이었는데 이러한 후속 법률은 중국인 상인으로 인해 나타났다고 보기도 한다.¹²²⁾

실제로 이 당시 필리핀 내 많은 사람들은 쌀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쌀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중국인 쌀 상인들을 그 원인으로 규정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중국계 상인들이 쌀 부족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필리핀보다 높은 홍콩으로 쌀을 수출한 경우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¹²³⁾ 그러나 필리핀 내 가장 많은 쌀을 유통하던 시콩빈 회사(Siy Cong Bieng Company)의 매니저였던 알폰소 사이프(Alfonso Sycip)는 중국인 쌀 상인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공격이 이어진다고 호소하는 편지를 필리핀 정부에 작성하여 중국계 상인들의 억울함을 표출하였다. 실제로 시콩빈 회사는 필리핀이 쌀 부족으로 힘든 시기에 사람들에게 쌀을 제공한 적이 있었다.¹²⁴⁾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법률로 인해 1919년 이후 중국계 상인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고, 이는 결국 1921년 마닐라에 필리핀 중국 쌀 상인 연합(Philippine Chinese Rice Merchants Association)이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¹²⁵⁾ 이처럼 미국이 대대적으로 쌀의 규제와 관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미 필리핀 내부에 존재하던 중국계 쌀 상인에 대한 견제가 있었으며, 이 사례에서 화교 미상에 대한 통제가 미국의 지배가 시작된 이후인 1910년대부터 강화되어 華商을 압박했음을 알 수 있다.

杜定友는 『필리핀 화교 교육사』(1929)를 통해 화교 사회를 압박하는 이러한 통제에 대해 화교의 처지를 대변했다.¹²⁶⁾ 그는 미국이 필리핀 식민지가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필리핀 정부의 독립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취하였으나 아직 독립할 정도의 수

122) Chiba Yoshihiro, "The 1919 and 1935 Rice Crises in the Philippines The Rice Market and Starvation in American Colonial Times", *Philippine studies* Vol.58, no.4, 2010, p.538.

123) Chiba Yoshihiro, "The 1919 and 1935 Rice Crises in the Philippines The Rice Market and Starvation in American Colonial Times", *Philippine studies* Vol.58, no.4, 2010, p.538.

124) Chiba Yoshihiro, 위의 각주, pp.534~535.

125) Kwok chu Wong,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 Economy 1898-1941*,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4, p.116.

126) 杜定友 著, 戴振聲 譯, 「菲律賓華僑教育史」, 『菲律賓研究』, 1929.

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필리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교 세력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경제적 영향력이 막강한 화교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비판하였다.¹²⁷⁾ 이처럼 화교 세력 내에서 특정 인물들은 미국 측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화교 세력이 반드시 조직적인 모습을 보인 것만은 아니었고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긴스버그는 당시 일부 중국계 소규모 사업체들이 미국인들과 활발한 거래를 하였으며, 중국계 상인 A.R.M. 옹책위(A.R.M. Ongcakwe)는 중국 공동체가 미국에 대해 “매우 친절하게” 대한다고 하였다.¹²⁸⁾ 또한 필리핀 중국계 상인인 카를로스 팔랑카(Carlos Palanca)는 미군이 처음 부두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부두에 있었으며, 미군을 위해 32000달러에 달하는 숙소를 지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¹²⁹⁾ 물론 팔랑카는 아기날도가 혁명 정부를 구축할 때도 지원을 하였지만, 이때 그는 아편 독점 가능성을 물어보는 등 전형적인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처럼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로 인해 중국인들에 대한 평가는 일정하지 않았다.¹³⁰⁾ 실제로 미국 의회에 보고한 상황 평가에서 오티스는 “군사 측면에서 중국인들은 미국인들의 친구이며... 그 너머에서는 상당수가 활발한 반란군으로 보인다.” 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¹³¹⁾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 지배층이 중국계 인물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중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척법은 화교 사회를 크게 압박하였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미국 본토에서 형성된 중국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필리핀 거주 중국계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부당한 대우에

127) 杜定友 著, 위의 책, 1929, pp.97~108.

128) Philip Ginsberg,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 REVOLUTION”, *Serial Enumeration Chronology*, Vol VIII, No. 1, 1970, p.149.

129) Philip Ginsberg,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 REVOLUTION”, 1970, pp.149~150.

130) Richard Chu, “From ‘sangle’ to ‘Chinaman’, ‘Chinese Mestizo’ to ‘Tsinoy’: unpacking ‘Chinese’ identities in the Philippines at the turn of the Twentieth-Century”, *Asian Ethnicity*, 24, 2021, p.16.

131) Philip Ginsberg,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 Revolution”, *Serial Enumeration Chronology*, Vol VIII, No. 1, 1970, pp.148~149.

대해 필리핀 거주 중국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발하였다. 물론 이와 별개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예도 있지만, 대체로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이 중화권을 배제하는 정책을 취하였기에 불가피하게 대립이 초래된 점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오티스와 같은 미국 지도자들의 견해에 대해 “비전문가 또는 부주의한 관찰자에게는 중국인과 함께 살고 일하는 중국 혼혈인과 완전한 중국인 사이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필리핀인들 사이에서 살고 일하는 메스티조가 여전히 중국인이라고 추정했을 것이다.”¹³²⁾라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국계 인물에 대한 미국 지배층이 보여준 인식의 한계는 필리핀 내 중국계 인물과 미국 사이의 긴장과 대립을 심화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필리핀 주재 어느 미국 장교는 중국계 인물의 단순 분류는 오류가 있다고 반문하였으나 이미 다방면으로 진행된 중국인 배척은 오히려 중국인의 결집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¹³³⁾

132) Philip Ginsberg,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 Revolution”, *Serial Enumeration Chronology*, Vol VIII, No. 1, 1970, p.149.

133) 아모스 F. 와일더 장군은 배척법(Exclusion Act)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중국인 배척법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순수 중국인 이외에도 중국인 혼혈을 대상으로도 이 중국인 배척법이 적용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다른 나라 인종들을 따라 질문하고 있다 (Chu Richard, “From ‘sanglely’ to ‘Chinaman’ , ‘Chinese Mestizo’ to ‘Tsinoy’ : unpacking ‘Chinese’ identities in the Philippines at the turn of the Twentieth-Century”, *Asian Ethnicity*, 24, 2021, p.17).

제 4 장. 미국의 교육 지침과 화교의 문화 활동

미국 정부의 중국인에 대한 제한적인 정책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필리핀 내 중국계 이민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미국은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중국인에 대한 통제를 시도했다. 미국은 이민법과 중국인 배척법으로, 스페인은 지역 분리와 종교 정책을 통해 중국인을 통제하려 한 것이다.¹³⁴⁾ 반면 두 나라가 보여준 지배 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의 방향이었다. 스페인은 원주민과 중국인의 결혼을 통해 나온 혼혈 개념과 종교를 이용한 귀화 정책으로 식민지 내 중국계 인물들을 통제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일루스트라도와 같은 중국계 혼혈이 대다수 포함된 지식층 집단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달리 공교육을 통한 지배 체제의 안정을 추구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식민지 교육은 단순히 식민지 내부적으로 교육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군사적 평정의 보조 수단이자 스페인 영향력을 약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¹³⁵⁾ 그리고 교육을 통한 식민 지배라는 설정은 미국 지배의 중심적 개념인 먼로 독트린이나 “white man’s burden”의 개념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에 미국의 입장에서 교육은 그들의 식민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¹³⁶⁾

더 나아가 미국은 필리핀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자국의 교육 정책에 대해 필리핀 내 소외된 계층의 참정권 교육 및 대중 교육의 발전이라는 목적하에

134) 인트라무로스(Intramuros)는 마닐라, 필리핀의 역사가 깊은 와우성 지역으로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건설되었으며 스페인인들을 제외한 원주민과 다른 혼혈 인구의 거주를 제한하였다. 이 지역은 정치와 종교, 교육, 경제 활동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런 지역 구분 정책은 스페인인들이 필리핀 원주민들과 혼혈 인구를 상대로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스페인인들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종교와 문화를 전파하고 스페인의 권력을 확대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Nicholas P. Cushner, “The Walled City.” *Philippine Studies*, vol. 8, no. 3, 1960, pp.672~674).

135) 양두영,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에 대한 공교육 도입 정책, 1898~1902」, 『미국사연구』, Vol.46, 2017, p.178.

136) 梁志明的 식민주의사 동남아권에서도 교육은 미국의 ‘미화’와 ‘동화’의 주요 도구로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梁志明, 『殖民主義史: 東南亞卷』, 北京大學出版社, 1999, p.472).

정책을 실시했다고 평가되었다.¹³⁷⁾ 미국은 영어를 이용한 수업 이외에도 필리핀 아이들에게 미국 노래와 미국 시와 같은 미국 고유의 역사와 문학을 가르침으로써 필리핀의 근간에 미국의 사상을 주입하고, 식민 기반을 사회 전반에 깊숙이 쌓고자 하였다.¹³⁸⁾

이러한 미국 교육 정책에 대해 ‘미국화(Americanization)’ 를 하기 위한 도구라는 시각이 다수 존재하였다. 그러나 필리핀 화교는 다음과 같은 내외부적인 정책의 이유로 인해 미국의 교육 정책 내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있었던 벌링게임 조약(Burlingame Treaty)이 외부적으로 필리핀 화교 교육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1868년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1869년 베이징에서 비준된 이 조약은 중국에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였다. 조약의 제6조(Article VI)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가장 우대받는 국가의 시민이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동일한 특권, 면제, 예외를 여행이나 거주와 관련하여 즐길 수 있을 것이고, 상호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중국 주민들은 가장 우대받는 국가의 시민이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동일한 특권, 면제, 예외를 여행이나 거주와 관련하여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중국에서 미국 시민에게, 또는 미국에서 중국 주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¹³⁹⁾

137) Charles F. Keyes, *Reshaping Local Worlds: Formal Education and Cultural Change in Rural Southeast Asia*, Yale Southeast Asia Studies, 1991, p.55.

138) 권오신, 『미국의 제국주의: 필리핀인들의 시련과 저항』, 문학과지성사, 2000, pp.124~125.

139)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visiting or residing in China shall enjoy the same privileges, immunities or exemptions in respect to travel or residence as may there be enjoyed by the citizens or subjects of the most favored nation, and, reciprocally, Chinese subjects visiting or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shall enjoy the same privileges, immunities and exemptions in respect to travel or residence as may there be enjoyed by the citizens or subjects of the most favored nation. But nothing herein contained shall be held to confer naturalization upon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in China, nor upon the subjects of China in the United States.” (Burlingame Treaty Article VI, State Historical Society of Iowa, 1868).

이 조약은 1900년대에 들어 필리핀을 장악한 미국 측에도 유효하게 작용하였다. 미국은 이 조약을 통해 양국의 영역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중국 역시 역으로 이 조약을 통해 필리핀 내에 학교 및 교육기관의 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¹⁴⁰⁾ 실제로 중국은 이 시기 필리핀 내 화교 학교에 중국인 교사를 파견하고, 화교 학교에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이유는 내부적으로 미국이 필리핀 내 사립학교의 설립을 허가했다는 점이다. 1901년 태프트는 제74법(Act 74)을 제정하며 필리핀 공립 교육부(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를 설립하였다. 이 법률은 제1항과 2항을 통해 필리핀 제도에 설립된 모든 학교가 이 교육 부서에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미국은 이 법률을 통해 필리핀 내 교육의 중심을 맡고자 하였다. 이는 미국의 교육 정책의 중요한 법률이라고도 볼 수 있다.¹⁴¹⁾ 특히 이 법의 제25항은 그 내용이 당시 필리핀 화교 사회에 영향을 주었다.

제25항: 이 법에서 어떠한 것도 개인 학교의 설립과 유지를 금지하거나,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¹⁴²⁾

이 조항을 통해 미국의 관리 체계에만 따라준다면 사립학교의 설립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 측 화교 연구에 의하면, 화교 사회는 이 법률을 통해 내부적으로 사립 화교 학교를 세울 수 있는 정당성 역시 부여가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실제로 1913년에 미국 식민당국이 승인한 사립학교의 수가 자그마치 30곳이나 되었다는 것을 통해 미국은 중국 학교의 자율적인 증설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교 역시 본인들의 의도에 맞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조항

140) 姜興山, 『菲律賓華人文化重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pp.112~113.

141) United States Philippine Commission, Act No. 74 Section. 1, Section 2, January 21, 1901.

142)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in any way to forbid, impede, or obstruct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private schools.” (United States Philippine Commission, Act No. 74 Section. 25, January 21, 1901).

을 통해 주어지게 되었다.¹⁴³⁾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이 필리핀에 보여준 교육에 관한 관심이다. 미국은 필리핀 내 교육 정책을 정리하는 것과 더불어 학교의 수와 필리핀 내 학교의 증설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화교 교육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던 중국계 화교와 중국 정부에 있어 굉장한 희소식이었다. 실제로 미국의 교육 면에서의 이와 같은 관심은 1901년 1월 21일 프레드 아킨슨(Fred Atkinson) 박사를 통해 입안된 학교 교육기본법에서 나타났다. 교육기본법의 내용은 영어를 우선으로 사용하는 무상 초등 교육 제공, 미국으로부터 미국인 교사를 초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 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 설립과 학교 건물 확보가 목적이었다.¹⁴⁴⁾ 그중 학교 건물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이는 학교를 끊임없이 증설하던 화교 세력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1901년 8월 26일 자 뉴욕 타임스 7면에 있는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킨슨 박사는 다음과 같이 밝히며 당시 필리핀 내 학교 상황에 대해 언급하였다.

필리핀 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적절하고 적합한 학교 건물에 대한 것이다. 군인들이 점거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학교 건물은 가능한 한 빠르게 비워져야 하며, 학교 용도로 사용 중인 모든 수도원 또는 기타 교회 재산에 대한 임대 또는 퇴거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건물들은 대부분 상태가 좋지 않다. 그것들을 수정하고 수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자금을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학교 건물들은 대체로 한 두 개의 큰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에서는 여러 교사가 각각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방들은 모두 과밀화되어 있고, 많은 경우 창문이나 바닥이 없다. 때때로 한 교사가 100에서 200명의 학생을 맡기도 한다.¹⁴⁵⁾

143) 姜興山, 『菲律賓華人文化重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p.117.

144) 권오신, 앞의 책, 2000, p.98.

145) "...The greatest present need is that of adequate and suitable school buildings. All school buildings occupied by soldiers or in any way used for military purposes should be vacated and turned over to the school authorities at the earliest practical moment, and arrangements should be made for the rent or vacation of all convents or other Church property now used for school purposes... Nearly all the building that have been

요컨대, 필리핀 내 학교의 증설과 교사의 초빙은 순조로웠다. 그러나 필리핀 내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학교 건물이라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 본토에서도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발전에 관심이 많았다.¹⁴⁶⁾ 그리고 이런 대대적인 학교 건물의 증설 및 학교 수의 증가는 화교 학교의 세력을 높이던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미국은 교육을 중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필리핀 사회의 지배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다.

화교 교육과 미국의 교육 방침의 또 다른 연관성으로는 미국 교육 방침의 개방성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 지정한 교과서를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고자 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미국은 필리핀 화교의 남양 학교에 대해서 크게 간섭하지 않고 이들의 성장에 대해 관대하게 받아들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계 필리핀인을 제외한 몇몇 필리핀인들은 다종의 교육 자재와 미국으로부터 파견된 교사들로 인해 복잡한 문화 충격을 느끼게 되었지만, 당시 중국인들에게 있어 미국의 교육 정책이 가진 자율적인 성향은 하나의 기회일 뿐이었다.¹⁴⁷⁾

이 부분에 대해 미국 지배 시기 필리핀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교육문제에 대해 화교 세력의 학교는 미국 정부의 지침보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나 지침 등에 영향을 더 받았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¹⁴⁸⁾ 그리고 실제로 학교

used for military purposes are in poor condition.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municipalities to spend money for their alteration and repair. Present school buildings consist generally of one or two large rooms, with several teachers carrying on work in each room. These rooms are everywhere overcrowded, and many have no windows or floors. sometimes one teacher has from 100 to 200 pupils.”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미국이 필리핀 내 학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점과, 당시 교육 법안을 책임지던 아킨슨 박사 이외에도, 1903년부터 1909년까지 교육 사무국 국장으로 일한 데이비드 바로스(David Barrows) 박사의 의견 역시 뉴스에 실린 것을 알 수 있다 (The NewYork Times 1901년 8월 26일 자).

146) 위의 글 참조. The NewYork Times 1901년 8월 26일 자.

147) 1899년부터 1924년을 필리핀 화교 문화 교육가 창설되고 발전하는 시기라고 보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앙글로-차이니스 학교뿐만 아니라 마닐라 여러 곳에서 많은 학교가 증설됨에 따라 필리핀 화교에게 더 많은 중화권 교육의 기회가 열렸다 (권오신, 『미국의 제국주의: 필리핀인들의 시련과 저항』, 문학과지성사, 2000, pp.97~98, 莊國土, 『菲律賓華人通史』, 廈門大學出版社, 2012, p.332).

설립의 개방성 아래에서 많은 학교가 증설되었다는 점은 학교의 규모 증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899년 4월 15일에 중국 영사관 부지 안 학교¹⁴⁹⁾의 학생 수가 장기간 100명 이상을 넘지 못했을 정도로 적었지만, 1912~1935년 기간 사이에는 학교 자체만으로도 이미 57개교까지 증가하였다는 점을 통해 당시 미국의 화교 교육의 발전에 대한 견제가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⁰⁾

한편 화교 집단의 관점에서 학교의 존재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중화권 정체성의 확립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었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중국 문화를 내부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돕는 도구로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학교라는 곳은 단순히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여러 가지 사상에 대한 교육 역시 진행할 수 있는 장소였다. 그리고 중화 문화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화교 세력에게 있어 학교는 역사와 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적 필수 기관으로 작용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필리핀 사회의 변화하는 조건에서 중국 공동체의 전통적 가치를 부활시키려는 노력이 학교 시스템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였다. 더 나아가 필리핀 내 학교들은 필리핀 중국인들에게 중국 문화, 중국 역사와 관습, 중국어 및 중국적 관점에 관한 관심을 되살리고 유지하는 데 전념하게 하였다.¹⁵¹⁾

물론 1917년 미국 성공회에서 화교 여학교와 성공회 중학교를 만들어

148) 권오신,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식민교육 정책의 성격」, 『동국사학』, 61, 2016, p.488.

149) Anglo-Chinese School이라는 이름의 학교이며, 학생 중 중국계 혼혈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는 유교 사상을 가르쳤다는 점인데, 사서오경과 같은 책들을 교재로 사용하였다(Richard Chu, “Chinese and Chinese Mestizos of Manila [electronic Resource] : Family, Identity, and Culture, 1860s-1930s,” *Brill*, 2010, p.347).

150) 권오신,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식민교육 정책의 성격」, 『동국사학』, 61, 2016, p.485.

151) “...one significant aspect of the school system was precisely its effort to revive traditional values of the Chinese community under the changing conditions of Philippine society. The schools were dedicated to preserving and reviving the interest of Philippine Chinese in Chinese culture, Chinese history and customs, and Chinese language and Chinese outlook.” (Richard Chu, “Chinese and Chinese Mestizos of Manila [electronic Resource] : Family, Identity, and Culture, 1860s-1930s,” *Brill*, 2010, p.347).

중국계에게도 미국의 공교육을 도입하려고 시도하였다.¹⁵²⁾ 그러나 사상적인 측면은 중국의 정계 활동이 필리핀 내 화교 학교에 더욱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신해혁명 이후 1912년부터 1916년까지 필리핀 각지에서 화교 학교가 증설되었다. 그리고 이 중 마닐라와 같이 중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도시는 학교의 규모가 급속도로 빨리 성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1925년 쑨원의 사망을 기리기 위해 필리핀 화교 사회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중산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필리핀 내에 추가로 증설되었다.¹⁵³⁾ 화교 학교의 증설 목적이 단순히 중국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설명하기에는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화교 사회 움직임의 바탕에는 미국의 공교육 제도 추진이 있었다. 물론 공교육을 통한 학교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양 학교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재원’이었다. 우선 전체적인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은 학교 재정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었다.¹⁵⁴⁾ 그렇기에 학교 유지비를 감당하는 주체는 주로 소수의 가정과 화교 사회 집단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마저도 학교가 증설됨에 따라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으며,¹⁵⁵⁾ 이로 인해 학교 유지에 대한 우려가 심했다. 이에 1914년 12월 13일에 필리핀 소재 중국 교육위원회(Philippine Chinese Educational Association)가 구성되었는데 위원회는 학교 유지 목적으로 화교 사회에서 나오는 판매세의 2%를 기증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보며 재정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밖에 여러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 공급처가 꾸준히 화교 사회에서 언급되었으며, 중화권 사업가들의 재정적 지원 역시 대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¹⁵⁶⁾

다음 문제는 교재 및 과목 선정에 대한 것이었다. 화교의 경우에는 학교 내 과목에 대한 문제가 다른 원주민 학교보다 심각하게 학생들에게 작용하

152) 莊國土, 『菲律賓華人通史』, 廈門大學出版社, 2012, p.331.

153) 莊國土, 『菲律賓華人通史』, 廈門大學出版社, 2012, pp.332~334.

154) 黃滋生·何思兵, 앞의 책, 2016, p.385.

155) 黃滋生·何思兵, 앞의 책, 2016, pp.385~387.

156) 권오신,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식민교육 정책의 성격」, 『동국사학』, 61, 2016, pp.485~486.

였다.¹⁵⁷⁾ 당시 중국 문화 교육을 위해 문화 지식, 역사, 국어 수업이 중화권 학교에 적용되었는데 이런 학교가 필리핀에 설립되었기에 필리핀 교육 당국의 규정에서 지정한 수업 역시 강의 과목으로 선정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당시 교육용 과제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영어 문학을 비롯해 영어를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과목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표 4).

(도표 4: 1904년에서 1941년까지 사용된 미국에서 정한 필리핀 내 중등 학문 교육과정의 초본.)¹⁵⁸⁾

중등 학문 교육과정(Secondary Academic Curriculum)	
1학년	2학년
영어 문학 필리핀 역사 과학(식물학) 수학 언어(라틴어)	영어 문학 역사: 고대~중세 과학(동물학) 수학(기하학) 언어(라틴어)
3학년	4학년
영어 문학 역사:근대 과학 언어(스페인어와 불어)	영어 문학 미국 역사와 정치학 물리 언어(스페인어 혹은 불어)

영어를 이용한 과목이 필수로 있어야 했으므로, 앞서 언급된 수많은 언어로 진행되는 여러 과목은 시간 부족과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였다.¹⁵⁹⁾ 또한 중국 본토에서도 남양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사를 대거 파견하여 중화사상을 가르치려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해당 지역 학생들의 거주 환경에서 비롯된 다른 사상과 사고방식이 수업의 내용과 충돌하

157) 黄滋生·何思兵, 앞의 책, 2016, pp.386~387.

158) Maria Guillen Aciero, *American Influence in Shaping Philippine Secondary Education: An Historical Perspective, 1898-1978*, Loyala University Chicago, 1980, pp.91~92.

159) 黄滋生·何思兵, 앞의 책, 2016, pp.386~387.

는 문제가 수반되었다.¹⁶⁰⁾ 이 외에도 당시 여러 국가의 교사들이 같이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들이 사용하던 교과서 역시 전부 각기 다른 부서에서 나왔기에 수업 진행에 있어 혼란이 있었다.¹⁶¹⁾

이러한 다양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앙글로-차이니즈 학교(Anglo-Chinese School)를 꼽을 수 있다. 앙글로-차이니즈 학교는 대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교육기관인데, 이 학교는 특징적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교육 언어로 사용하였다. 이름 역시 영어를 뜻하는 ‘앙글로(Anglo)’와 중국어를 뜻하는 ‘차이니즈(Chinese)’를 사용하였으며, 학급의 구성원 역시 중국계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¹⁶²⁾ 그러나 중국인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구성원과 학교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와 같은 언어를 지속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혼동과는 별개로, 화교 세력 측에서는 미국의 공용어 정책과 교육의 다양화로 인한 혼동 등을 오히려 다방면의 교육을 이끄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1917년 창간한 菲律賓華僑教育叢刊의 설명에 의하면, 黎元洪과 같이 중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은 당시 이런 혼합된 교육의 형태를 오히려 대륙의 다양한 교육방식을 통합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화교와 화예의 교육 양상을 통해 이들이 조국을 잊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¹⁶³⁾ 실제로 이 책은 黎元洪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을 시작으로 앙글로-차이니즈 학교의 전체적인 구성원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사진들, 그리고 필리핀 내부 화교 이외에 여러 집단이 운영하는 회사의 광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언어로

160) 권오신,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식민교육 정책의 성격」, 『동국사학』, 61, 2016, pp.484~485.

161) Richard Chu, “Chinese and Chinese Mestizos of Manila [electronic Resource] : Family, Identity, and Culture, 1860s-1930s,” Brill, 2010, p.346.

162) 한 개의 반의 사진을 통해 당시 반 자체의 규모가 다양했음을 알 수 있고, 그 구성원의 이름을 통해 이들의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華僑中西學校主辦並, 『菲律賓華僑教育叢刊』, 小呂宋華僑中西學校主辦, 1917, p.62).

163) 華僑中西學校主辦並, 『菲律賓華僑教育叢刊』, 小呂宋華僑中西學校主辦, 1917(검색일:20230508) (<https://www-cnbsy-com.libproxy.snu.ac.kr/literature/literature/814656d6d7857462b473b432dc546ea2>).

표시되어 있다.¹⁶⁴⁾

이처럼 중국 본토의 성향을 드러냄과 동시에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통해 당시 화교 세력은 ‘미국화’ 혹은 ‘필리핀화’로 인한 중화권 문화의 상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11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학교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아침에는 영어로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중국어로 수업하는 이중언어 몰입 교육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는 1926년도에 들어서 완전히 확립되었다.¹⁶⁵⁾

필리핀 지배 초기 미국의 교육을 통한 지배와 방향은 화교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한 화교와 중국계 혼혈을 대상으로 적용된 강압적인 이민법과는 달리, 미국의 교육 지침들은 화교 세력에게 있어 그리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다. 비록 내부적으로 학교 운영에서는 완전무결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의 기능성에 대한 고민과 문제해결의 과정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당시 화교 사회에서 추구하던 문화 유지의 환경을 학교가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표출되었다.¹⁶⁶⁾ 그러나 당시 세계의 정치적 사정과 교육기관의 복잡성으로 인해 초기 화교들은 교육 면에서 정책상의 변화를 지속해서 받아들여야만 했다.¹⁶⁷⁾

이후 1917년 식민당국이 사립 교육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면서 화교 학교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¹⁶⁸⁾ 이 시기부터 1930년대까지의 기간을 “화문학교의 황금 시기”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¹⁶⁹⁾ 당시 수많은 학교가 증설되었기 때문이다. 마닐라의 경우 中山, 欽正, 青年, 工餘, 猛醒, 中華, 民生, 巴西, 曙光, 南洋, 義德, 平民, 紅光 등 13개의 학교가 추가로 세워졌다. 당시 마닐라에만 화교 학교가 23개나 있었고, 필리핀 전 지역에서

164) 華僑中西學校主辦並, 『菲律賓華僑教育叢刊』, 小呂宋華僑中西學校主辦, 1917, pp.30~40.

165) Eufronio M. Alip, *The Centuries of Philippine-Chinese Relations*, Alip & Sons Inc. Manila, 1959, pp.125~126.

166) 黃滋生, 何思兵, 위의 책, 2016, p.380.

167) 姜興山, 『菲律賓華人文化重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pp.106-110.

168) Javier, Yolanda V. and Mogol, Martha Alegre, “The Filipinos : their education yesterday and today”, *Yolanda V. Javier and Martha Alegre Mogol*, 2005, pp.36~37.

169) 姜興山, 『菲律賓華人文化重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p.122

는 무려 80개에 육박하는 학교 수를 자랑했다.¹⁷⁰⁾ 그리고 당시 필리핀 내 중화권 학교에 다니던 학생 수가 1만여 명이였다는 점을 참작하면 당시 학교 학교의 성장세가 굉장했음을 알 수 있다.¹⁷¹⁾ 또한 이른바 필리핀화가 진행되어 중화권의 유지를 잃고, 일부 화예들처럼 완전 동화되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중화권 사회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필리핀화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학교 내 화교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여러 과목에 대해, 동남아에서 태어난 많은 화교 자녀 중 중화권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식민 문화 혹은 그 땅의 문화에 더욱 노출되어 버린다고 인식했다. 즉, 이들의 우려에 따르면 몇 대가 거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어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언어는 문화의 근간이 되는 것이므로 중국어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중국 문화의 전승이 끊기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땅의 사람들과 같이 융화되어, 새로 이주해 온 화교들과 충돌을 일으켰다. 따라서 화교 교육의 발전은 화인들의 문화 보존을 위한 중요한 무기였다.¹⁷²⁾

한편, 간과해서는 안 될 집단은 중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화예들은 이른바 중화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거나 거부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이들 역시 중화 문화권에 대한 반발 여부를 떠나 혈통 문제로 인해 중국계로서 묶이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물론 이들을 완전히 중화권 문화를 지킨 화인들과 화교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당시 많은 중국계 혼혈들 역시 화인 학교를 등교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필리핀 화예를 화교 세력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¹⁷³⁾

170) 周勝皋, 『海外華文學校教育』, 僑務委員會僑務研究室, 1969, p.70.

171) 姜興山, 『菲律賓華人文化重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p.123.

172) 莊國土, 『菲律賓華人通史』, 廈門大學出版社, 2012, pp.334.

173) 물론 이점에 대해서도 화교 세력 내에서 학교가 문화 유지만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경우도 존재한다. 앞선 장에서 언급한 카를로스 팔란카(Carlos Palanca Tan Quin Lay) 예시의 경우, 그는 자기의 가족 사업의 도움이 되기 위해, 그의 아들을 학교로 보내 화학자가 되게끔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문화 유지와는 별개로 개인 사업의 이득을 위해 자식의 교육을 지지하였다 (Richard Chu, “Chinese and Chinese Mestizos of Manila [electronic Resource] : Family, Identity, and Culture, 1860s–1930s,” *Brill*, 2010, p.349).

또한 학교 이외에도 필리핀 내 화교 세력은 그들의 중국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는 각각 여러 형태의 사회 집단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친회와 중화 신문이었다. 특히 신문은 많은 역할을 수행했는데,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문 발간으로 필리핀 내 화교들은 본인들의 근간이 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상회 자체적으로 유지한 신문의 경우 지역 사회에 대한 소식의 전파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화교 사회의 지식 발전 및 정보 교류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¹⁷⁴⁾

이러한 신문사의 용도는 크게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신문은 화교 세력에게 있어 중화권에 대한 문화 교류와 더불어 중국 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세부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화보(華報)』는 필리핀 최초의 화교 신문인데 이 신문은 『마닐라 데일리 불리틴(Manila Daily Bulletin)』보다도 12년이나 앞서서 발행되었다.¹⁷⁵⁾ 그러나 신문은 효과적으로 화교 사회 전체에 널리 읽히지는 못했다. 마닐라 화교의 근간은 엄연히 농, 공, 상, 세 개의 직업이 위주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으며, 이 세 직종의 특징은 바로 문자를 인식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¹⁷⁶⁾ 더욱이 화교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고 ‘각성’ 하지 못했기에, 화교 사회는 『화보』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워 1년 뒤 발행이 중단되었다.¹⁷⁷⁾

다음으로 정치적인 측면과 관련된 신문을 살펴보면 『익우신보(益友新報)』와 같은 예가 존재한다. 필리핀 내 화교 사회에도 중국 본토에서 언급되고 있던 양계초의 정치적 주장을 전하기 위해 『익우신보(益友新報)』와 같은 신문을 발행하였다.¹⁷⁸⁾ 이미 언급한 『화보』와는 달리 『익우신보』는 발행 규모

174) 姜興山, 『菲律賓華人文化重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pp.246.

175) 趙振祥, 『菲律賓華文報史稿』, 世界知識出版社, 2006, pp.35~36.

176) 因此, “普智閣書報社” 決定出版小型報, 並定名為公理報.

공리보라는 신문사의 경우, 이런 문맹 문제와 외국 신문에서 비롯되는 외국어 문제를 인지하고, 앞선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화교 사회를 위한 신문을 냈으며, 화교 민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姜興山, 『菲律賓華人文化重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p.248).

177) 趙振祥, 『菲律賓華文報史稿』, 世界知識出版社, 2006, p.36.

178) 趙振祥, 앞의 책, 2006, p.37.

와 내용의 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고, 당시 화교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역시 발행을 주관하던 維新派 인사들의 철수와 함께 발행이 중단되었다.¹⁷⁹⁾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내용이 주가 되는 신문이 아님에도 중화권 사상과 중국 본토에 필리핀 화교 사회의 관심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언급한 화보들의 발전이 촉진되었던 1918년도에 각종 화보가 3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중국인 사회가 중화 문화라는 개념 아래 연합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낮은 지위를 극복하고자 신문을 통해 화교 사회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각종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화보들의 주된 목적으로 중국 국내 정국을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국 정치에 접근할 기회가 증가하고 중국 국내의 정당들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필리핀 내 화교 상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줌에 따라 그들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¹⁸⁰⁾

화교 사회에 나타난 신문사 활동은 화교들이 중국어를 이용한 신문을 발행하고자 했다고만 단순화할 수는 없다. 다른 여타 필리핀 내 영어 신문보다도 빠른 시기에 화교는 신문을 통해 중화권 소식을 접하고자 하였으며, 화교 사회에서 중국 문화의 보존을 위해 신문사와 같은 사회단체를 형성했다. 이때 당시 화교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중 몇 대를 거쳐 화예로서 자리 잡은 중국계 혼혈도 그 화교 사회권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요컨대, 필리핀 화교는 장기간 필리핀 사회에 노출됨에 따라 필리핀화의 위험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중화권 문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신문사와 같은 중국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중화권 문화를 사회 내에 지속시켜 자신들의 뿌리를 유지하였으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자신들의 근간이 되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활동에는 미국의 식민지 시기 교육 정책이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교육 정책을 통해 필리핀의 지배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

179) 姜興山, 『菲律賓華人文化重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p.247.

180) 莊國土, 『菲律賓華人通史』, 廈門大學出版社, 2012, pp.337~338.

다. 그러나 교육 정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화교 학교 설립에는 큰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미국 지배 초기 중국인을 위협으로 생각하며 배척하는 것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개방적인 태도와 중화권 세력의 교육에 대한 지지는 필리핀 화교 사회에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¹⁸¹⁾ 그러나 화교 계열 학생 중 중국계 혼혈이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중화권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화교 사회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점으로 볼 때 당시 화교 사회에서도 혼혈 계통에서 나타나는 중국 문화 상실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는 필리핀 정착 이후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견디고 극복해야 할 시련 중 하나였을 것이다.

181) Richard Chu, "Chinese and Chinese Mestizos of Manila [electronic Resource] : Family, Identity, and Culture, 1860s-1930s," Brill, 2010, pp.344~346.

제 5 장. 결어

본 연구는 미국의 필리핀 식민 통치 시기 나타난 필리핀의 화교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당시 사회적 현황과 필리핀 화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밝힌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리핀 사회에서 화교의 범위를 규정할 때 중국계 혼혈 및 화예를 배제하고 화교 사회의 구성원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필리핀 화교정책은 화교 사회를 압박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화교 사회가 단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이 필리핀 내 화교 및 중국인에 대한 정책을 설정함에 있어, 그 대상자가 중국계라는 넓은 범주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화교의 반응을 통해 필리핀 화교 내부적으로 정체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미국의 교육 정책 속에서 화교 사회는 중국 문화를 보존하고, 필리핀화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통용되는 ‘화교’의 개념은 내부적으로 분류가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성향이 단순하다. 그러나 필리핀 화교는 장기간의 스페인 식민지 지배와 동화 정책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중국계라는 혈통의 공통점은 있지만, 정체성에서 차이가 컸다는 점은 필리핀 화교의 특이성이었다. 특히, 광의의 화교 내에서 이른바 ‘화예’라고 지칭될 수 있는 중국계 메스티조는 다른 중화성이 강한 화교나 화인과 다를 바 없이 미국 정책 내에서 동일하게 정책의 대상자가 되었다. 물론 혈통이라는 개념은 필리핀 화교 사회를 정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고, 정책에 대상자를 설정함에 있어 혈통이라는 개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화예가 ‘중국인’이라는 범주에 통합되지 않고 ‘중국계’ 메스티조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중국 정체성이 강한 화교와 달리, 중국계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있어 협의의 화교 및 화인과는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이런 화교 내의 분류에 대해 아예 무지했던 것은 아니다. 여러 공식적인 보고서에서도 화교의 다양성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확인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인 인구수의 급증과 함께 스페인령 시기에 창출된 수많은 중국계 메스티조의 존재를 필리핀 사회의 걱정거리로 여기며 부정적인 시각을 고수하였다. 이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공평한 이민법이 적용되었고, 그 불공평한 이민법의 대상자가 필리핀 중국계 전체라는 큰 범주로 설정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실제로 이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민법은 화교 사회 내에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켰다. 노동 계층의 안정이라는 초기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화교 세력의 반미 감정을 부채질하였다. 이는 화교 세력의 결속력이 강화하는 계기로서 작용하였다.

스페인 지배에서 미국 지배로 이행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체제 변화는 바로 지배 수단의 변화였다. 종교와 결혼을 통한 동화를 추구했던 스페인과는 달리 미국은 국가적 의무에 따라 필리핀 사회를 교육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미국은 교육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개방성을 화교 사회에게 제공하였고, 이런 미국의 개방적인 태도와 더불어 여러 정치적 법률과 조약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화교 세력은 중국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학교 설립에 힘을 줄 수 있었다. 필리핀 내 화교 사회는 학교를 통해 중화권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자체적으로도 신문 발행 등을 통해 중국 문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필리핀 지배가 시작된 초기 중국인 대상 정책에 대한 화교의 반응을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중화 문화가 어느 정도 유지된 화교 사회의 자체적인 활동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였다. 그러나 중화권 문화가 완전히 소멸한 화예 인물의 사례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당시 필리핀 내에서 필리핀 민족주의(Filipino Nationalism)가 대두되던 시기였기에 중국 문화적 특성이 전혀 없는 중국계 메스티조는 화교 사회를 위한 행동보다는 필리핀 국가 독립을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였다. 필리핀 화교의 성향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중국계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필리핀 화교의 정체성과 구성의 변화에 대한 이해의 문제의식 확장이 향후 국내외 화교 인식 및 관련 분야의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자료

暨南菲律賓華僑學生會編輯 [並出版], 菲律賓研究, 暨南菲律賓華僑學生會, 1928.

杜定友 著, 戴振聲 譯. 「菲律賓華僑教育史」, 『菲律賓研究』, 1929.

李長傳, 「南洋華僑史」, 『民國叢書』 第三編 22, 上海書店, 1943.

華僑中西學校主辦並, 『菲律賓華僑教育叢刊』, 小呂宋華僑中西學校主辦, 1917.

Bureau of Insular Affairs, War Department, Fourth Annual Report of the Philippine Commission 1903 part 3,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4.

Dewey, George, Autobiography of George Dewey: admiral of the navy. New York : Scribner, 1913.

Elwell S. Otis, Report of Maj. Gen. E. S. Otis,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0

Felipe Buencamino Sr, Census of the Philippine Islands Vol.2, Census Office of the Philippine Islands, Manila, 1921

United States, “Executive minutes of the U.S. Philippine Commission” , University of California, Sep.1900.

United States, Philippine Commission (1899–1900), Report of the Philippine commission to the President. : January 31, 1900[–December 20, 1900] [Vol. 1, no. 2], 1870–1925: The Age of Imperialism, 1900.

<https://quod.lib.umich.edu/p/philamer/aex9637.0001.002/1?rgn=full+text;view=image>

United States, “Lands held for ecclesiastical or religious uses in the Philippine islands, etc.” , Washington Government Print,

1901.

The 43rd United States Congress, An Act supplementary to the acts in relation to immigration, United States, 1875.

Tranquilino Roa v. Insular collector of custom, G.R. No. L-7011
1912.

신문

The NewYork Times

2. 연구서

국내

강연문, 『동남아 지역연구』, 도서출판두남, 2007.

권오신, 『미국의 제국주의: 필리핀인들의 시련과 저항』, 문학과지성사, 2000.

김민정, 『동남아의 중산층, 시민운동, 지역사회』,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폴리테이아, 2005.

박광섭, 『거시적 관점 동남아지역연구: 개별국가에 대한 사례: 필리핀 연구』, 박영사, 2021.

이정선, 『동화와 배제 : 일제의 동화정책과 내선결혼』, 역사비평사, 2017.

국외

姜興山, 『菲律賓華人文化重構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7.

十年來華僑經濟編撰委員會, 『十年來華僑經濟』, 十年來華僑經濟編撰委員會, 1981.

樑志明, 『殖民主義史: 東南亞卷』, 北京大學出版社, 1999.

濟陽柯蔡宗親總會, 『菲律賓濟陽柯蔡宗親總會慶祝90週年紀念特刊』, 濟陽柯蔡宗親總會, 1999.

- 莊國土, 『菲律賓華人通史』, 廈門大學出版社, 2012.
- 周勝皋, 『海外華文學校教育』, 僑務委員會僑務研究室, 1969.
- 夏誠華, 『非化政策對華僑經濟之影響』, 中華民國對海外華人研究學會叢書第七種, 2003.
- 洪卜仁, 『廈門辛亥風雲』, 廈門大學出版社, 2016.
- 黃滋生·何思兵, 『菲律賓華僑史』,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16.
- Eufronio M. Alip, *The Centuries of Philippine–Chinese Relations*, Alip & Sons Inc. Manila, 1959.
- Tracy C. Barrett, *The Chinese Diaspora in South–East Asia: The Overseas Chinese in Indo–China*, First ed, Library of China Studies, 2012.
- David Berubstein, *The Philippine Story*, Farrar, Straus and Company, New York, 1947.
- John F. Cady, *Southeast Asia: Its Historical Development*,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 Richard Chu T. *Chinese and Chinese Mestizos of Manila [electronic Resource]: Family, Identity, and Culture, 1860s–1930s*, Brill, 2010.
- Manalansan, Martin F., and Augusto Fauni Espiritu, *Filipino Studies: Palimpsests of Nation and Diaspora*,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
- Kenneth R. Hall, *A History of Early Southeast Asia: Maritime Trade and Societal Development, 100–1500*,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11.
- Norman A. Graebner, *Ideas and Diplomacy: Readings in the Intellectual Tradition of American Foreign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 Reynaldo C. Ileto, *Pasyon and Revolution: Popular Movements in*

- the Philippines, 1840–1910,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1979.
- Javier, Yolanda V. and Mogol, Martha Alegre, *The Filipinos: their education yesterday and today*, Yolanda V. Javier and Martha Alegre Mogol, 2005.
- Paul. A. Kramer, *The Blood of Government: Race, Empire, the United States, and the Philippine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6.
- Charles J. McCarthy, *Chinese Coolie Labor Minimal in Philippines*, *The Annals of Philippine Chinese Historical Association*, 1976.
- Purcell, Victor, *The Chinese in South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Anthony. Reid, *Sojourners and Settlers: Histories of Southeast Asia and The Chinese*, ASAA Southeast Asia publications series, 1996.
- S. G. Redding, *The Spirit of Chinese Capitalism*, Walter de Gruyter, Berlin, 1993.
- Carlos Quirino, *The First Filipino: A Biography of Jose Rizal* by Leon Ma. Guerrero, Guerrero Publishing, 2010.
- Peter, Stanley, *A Nation in the Making: The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1899–192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Leo Suryadinata, *Southeast Asia's Chinese Businesses in an Era of Globalization: Coping with the Rise of China*, edited by Leo Suryadinata,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ISEAS), 2006.
- Taylor, J. E., & Xu, L., *Chineseness and the cold war: Contested cultures and diaspora in Southeast Asia and Hong Kong*,

- Taylor & Francis Group, vol.1, 2021.
- Jeremy E.Taylor, Lanjun Xu, Chineseness and the Cold War: Contested Cultures and Diaspora in Southeast Asia and Hong Kong, Taylor & Francis Group, 2021.
- Wade, Geoff, Sun Laichen, Southeast Asia in the Fifteenth Century: The China Factor,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3.
- Dean C. Worcester, The Philippines past and present, New York: The Macmillan Co. 1914.
- Kwok chu Wong,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 Economy 1898-1941,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4.
- David Wurfel, Filipino Politics: Development and Deca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3. 연구 논문

국내

- 김중호, 「‘중화성’ 모색을 위한 시도들」, 『중국근현대사연구』, 73, 2017.
- 권오신,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식민교육 정책의 성격」, 『동국사학』 61, 2016.
- 박경태, 장미경. 「화교의 눈으로」,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2006.
- 박병석, 「20세기 말 중국 신좌파 중화성(中華性) 담론의 전개, 의의 및 비평」,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6(1), 2017.
- 박재수, 「화교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변화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9(2), 2015.
- 이덕훈, 「스페인령 필리핀에서의 중국인의 적응과 동화」, 『디아스포라연구』 8(2), 2014.
- 이덕훈, 「필리핀화교의 정착과 적응」, 『아시아 연구』 1, 1999.
- 이덕훈, 「화교의 자본형성과정과 경영전략」, 『경영사학』 16권, 1997.

- 양두영,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에 대한 공교육 도입 정책, 1889~1902」, 『미국사연구』 46, 2017.
- 오영인, 「미국 1870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70)과 이민자들 - 19세기 중국인 쿨리(Coolie)를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56. 2019.
- 홍재현, 「화교사회의 형성과 특성 연구」, 『중국인문과학』 34, 2006.

국외

- Alfonso O. Ang, "Rizal's Chinese Overcoat", Chinese Commercial News Manila, 2005.
- Berry, Brewton, Edgar T Thompson, and Everett C Hughes. Race: Individual and Collective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3, 1959.
- Nicholas P. Cushner, "The Walled City", Philippine Studies, vol. 8, no. 3, 1960.
- Charles J. McCarthy, "Slaughter of Sangleys in 1639", Philippine Studies, vol. 18, No. 3 July 1970.
- Richard Chu, "The 'Chinese' and the 'Mestizos' of the Philippines: Towards a New Interpretation", Philippine Studies, Vol. 50. No. 3, 2002.
- Richard Chu, "From 'sangley' to 'Chinaman', 'Chinese Mestizo' to 'Tsinoy': unpacking 'Chinese' identities in the Philippines at the turn of the Twentieth-Century", Asian Ethnicity 24, 2021.
- Clemente, Tina S, and Chih-Yu Shih. "China Studies in the Philippines", 1st ed. Vol. 197. Milton: Routledge, 2019.
- John M. Gates, "War-Related Deaths in the Philippines, 1898-1902." Pacific Historical Review 53.3, 1984. pp.367-378.
- Go Bon Juan, "China, the 'Chinese Economy' and the Ethnic Chinese in

- the Philippines”, ISEAS-Yusof Ishak Institute Singapore, 2018, p.221-257.
- Go Bon Juan, “The myth of Chinese dominance”, Review Publishing Company Ltd, Vol.156 (46), 1993.
- Go Bon Juan, “‘Ma’l in Chinese Records-Mindoro or Bai?: An Examination of a Historical Puzzle.’” *Philippine Studies* vol.53, no.1, 2005, pp.119-38. Web.
- LEGARDA, B. “Two and a Half Centuries of the Galleon Trade”, *Philippine Studies*, Vol.3, No.4, 1955.
- Philip Ginsberg,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 REVOLUTION”, *Serial Enumeration Chronology*, Vol VIII, No. 1, 1970.
- G. W. Skinner, “Overseas Chinese in Southeast Asia.”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321, 1959.
- "The White Man's Burd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hilippine Islands." *American Eras Primary Sources* 1, 2013, pp.264-66.
- Villiers, J., “Silk and Silver: Macau, Manila and Trade in the China Seas in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of the Hong Kong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0, 1980.
- Edgar Wickberg, “The Chinese Mestizo in Philippine History” *Journal of Southeast Asian History*, vol. 5, no. 1, 1964.

Abstract

Th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Chinese Filipinos During the Early Period of American Rule

– Focusing on the Philippine Commission Era
from 1900 to 1916

JOO Hyun Kyoon

History Maj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nalyzes the influence of colonial rule on the Chinese Filipino community, referred to as 'Huaqiao', in the Philippines under American control in the early 1900s, and the subsequent changes this influence brought to their structure and activities. In contrast to the relatively singular meaning of the term 'Huaqiao' in other countries, the Philippines has been subject to both Spanish and American rule, leading to internal influences from various mixed forces and policies. Through this process, Chinese immigrants in the Philippines underwent changes similar to those experienced by other indigenous Filipinos, resulting in a diverse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s of Chinese heritage by the 1900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diversity of Chinese Filipinos, examining the potential changes in 'Huaqiao(華僑)' and exploring the influence of various policies and changes in ruling powers. Beyond the recognition of the term 'Huaqiao' as merely referring to Chinese immigrants in existing studies,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how both internal and external influences can diversify these individuals. The period analyzed in this paper is from 1900 to 1916, a time when the United States was establishing a regime through colonial rule over the Philippines via the Philippine Commission.

Looking at the early 1900s in the Philippines, the population structure was already very complex, with many races present. Among them, the Chinese population in the Philippines was internally diverse. Social dynamics led to various classifications such as Huaqiao(華僑), Huaren(華人), and Huayi(華裔), highlighting the differences in identity within the Huaqiao community. These variations can be found in other countries' Huaqiao communities, and the clear depiction of these through the analysis of Filipino Huaqiao is expected to assist future research.

Under American control, policies targeting the Chinese population in the Philippines were actively implemented. Among these, immigration laws affected most Filipinos of Chinese descent, leading to a strengthening of unity among some Chinese Filipinos. The Philippine Commission provided a basis for controlling the Chinese, stemming from concerns about their negative influence that began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850s. Despite these unfavorable positions, Huaqiao in the Philippines managed to expand the Chinese School, a crucial institution in preserving their Sinic culture, largely thanks to the U.S.'s partial

endorsement of private school establishments. Consequently, the Huaqiao community was able to conserve Chinese culture within their society through educational institutions like schools and newspaper publishing.

In the Philippines, as in other countries, Huaqiao constituted a self-governing force. The presence of diverse Chinese descents led to classifications like Huaqiao, Huaren, and Huayi, showcasing the internal diversity of Chinese Filipinos. This diversity can complicate the understanding Huaqiao as a homogenous entity. However, even under repressive policies, Huaqiao demonstrated a strengthened stance to protect their position. This research affirms that the Huaqiao society can preserve its unique characteristics and diversity while examining the responses and changes of the Chinese Filipinos under dominant influences. Although detailed case studies of groups with distinct identities, such as Huayi, are required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is study, its focus on the diversity of Huaqiao society holds significance.

Key Words: Chinese Filipinos, The Philippine Commission, Philippines
under American rule, Mestizo

Student Number: 2020-28301